

# WITH KRTA

The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Association

방사협보 2022 vol.388 — 첫 번째 이야기



9 772765 34100 1  
ISSN 2765-3412



대한방사선사협회



## Contents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 02 Intro  
탈피
-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 13 시·도회 소식
- 16 전문학회 소식
- 18 People 1  
강성홍 협회장
- 20 People 2  
서재룡 방사선사
- 22 One step forward  
2021년도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후기  
정동석, 이해은
- 24 Trust  
RT의 격

### 건강한 정책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26 Scene of KRTA  
다녀왔습니다  
2021 의원급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인력 매칭(대조) 조사
- 30 Guide  
질병관리청,  
2020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
- 32 Hospital Diary  
코로나 2년, 그리고 방사선사
- 38 Together  
코로나 시대와 CS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4 Essay  
다인학설, 그대가 행복해져야
- 46 Thinking  
존재가치 I  
가치 있는 직업, 보람 있는 삶
- 50 Pause  
주식, 어떻게 할까?
- 54 Webtoon  
숨 참으세요
- 56 Communication  
외국인환자의 응대를 위한 기초회화  
일반검사실에서의 흉부검사  
(영어, 중국어)
- 60 Quiz Event  
독자퀴즈

### We are RT's

WITH KRTA는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격월간지입니다.  
WITH KRTA는 협회 홈페이지(www.krta.or.kr)와 웹진(webzine.krta.or.kr)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WITH KRTA에 게시된 글과 사진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_  
대구보훈병원 이영주, 김동희  
포토 by 김홍식  
  
코로나19 현장에서 '방사선사'  
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홍식 선생님의 작품이  
'방사협보'의 표지를 장식하게  
되어 기쁩니다. \_이영주 선생님



# WITH KRTA

방사협보 2022 vol.388 — 첫 번째 이야기

- 발행일 2022년 3월 7일(통권 제388호)
- 발행인 조영기(대한방사선사협회장)
- 편집장 김기정(건국대학교병원)
- 편집위원 정성표(전북대학교병원)  
권익수(중앙보훈병원)  
김규형(일산명지병원)  
임우택(건국대학교병원)  
박정호(여의도성모병원)  
최유진(이대목동병원)  
변재후(강동경희대병원)  
김대호(한양대학교병원)  
심지나(신촌세브란스병원)  
송대영(충남대학교병원(세종))  
신현수(신촌세브란스병원)  
차일권(호산의료재단 지샘병원)  
김진수(용인세브란스병원)  
강보미(대한방사선사협회)
-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 전화 02-576-6524
- 팩스 02-576-6526
- 이메일 krta@krta.or.kr
- 홈페이지 www.krta.or.kr
- 광고 문의 협회 02-576-6524
- 편집·디자인 디자인판



웹진 바로가기



(사)대한방사선사협회  
홍보동영상

# 탈피

## 脫皮

일반적으로 탈피라 하면 '허물을 벗는 것'을 말한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분명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하여 허물을 벗는 탈피(脫皮)는 곧 성장을 말한다.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이 있다.  
 삶을 살아오면서 배어든 껍질... 언어, 행동, 습관, 표정 등  
 평생을 함께해 온 이 껍질들을 떼어내려면 고통이 따른다.  
 낯설고 외롭고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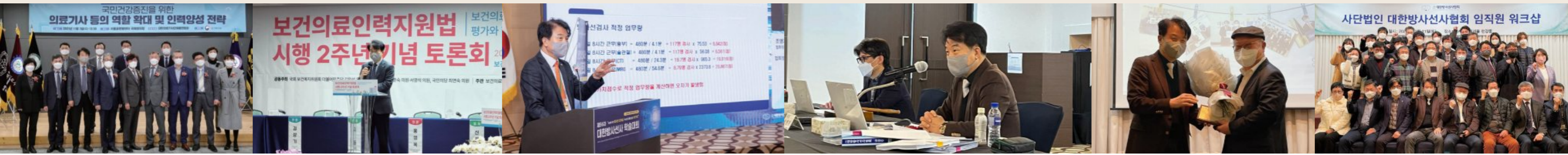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라는 서양 속담이 있다.  
 사람도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어제까지의 잘못된 생각이나 언어, 행동, 습관 등의 낡은 갑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고 죽거나 간혀 살게 된다.  
 가정, 학교, 사회를 통해 체득한 껍질은 떼어내기가 쉽지 않다.  
 떼어낼 때도 많은 고통이 따른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야 변할 수 있다.  
 탈피를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나의 시선과 나의 몸이 바뀐다.

우리는 탈피해야 한다..... 지금!

# 건강한 조직

KRTA가 전하는 이슈 & 뉴스

04	중앙회 소식 발로 뛰는 협회 KRTA News
13	시·도회 소식
16	전문학회 소식
18	People 1 강성홍 협회장
20	People 2 서재룡 방사선사
22	One step forward 2021년도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후기 정동석, 이해은
24	Trust RT의 격



# 발로 뛰는 협회

- 2021. 11. 1 복지부 업무보고,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응시 및 면제 기준세척(안) 마련 업무회의, 보건의료단체협의회 8차 운영위원회
- 11. 2 제56차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 점검 회의
- 11. 3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 2주년 기념 토론회, 2021년 보건의료기사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 2020년 학술대상 심사 회의
- 11. 5 법제부 업무보고
- 11. 6 제56차 대한방사선사 학술행사
- 11. 8 제2차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응시 및 면제 기준 세척 TFT 회의
- 11. 9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면담
- 11. 10 제2차 권익보호위원회 회의
- 11. 1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면담, 국회 정무조정 담당자 면담
- 11. 12 제7차 상임이사회의, 제23차 아시아-오스트랄라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행사 및 제28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 학술행사
- 11. 13 연수원 인천광역시 분원 MOU 체결 및 현판식/제28차 동아시아 방사선사 국제학술행사(EACRT) 대표자 회의
- 11. 14 제3차 윤리위원회 회의
- 11. 16 핵의학기술학회 임원 간담회, 감사 업무보고
- 11. 19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발기인 총회
- 11. 20 2021년 전문연수회/복지부 업무보고
- 11. 23 제6차 인사위원회의/제7차 회장단 회의/제5차 운영위원회의
- 11. 24 제3차 학술위원회의
- 11. 25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공청회 준비 회의
- 11. 27 제221차 정기이사회
- 11. 29 제2차 정보관리위원회 회의
- 11. 30 홈페이지 개편 실무자 회의, 교수협의회 간담회
- 12. 2 기록보존위원회 사전 회의
- 12. 3 한국방사선교육평가원 이사회의
- 12. 4 방사선사국가시험 간담회,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정도관리 심포지엄
- 12. 5 제4차 윤리위원회의
- 12. 6 제2차 기록보존위원회 회의
- 12. 7 김민철, 최연숙, 서영석 국회의원 면담
- 12. 8 대전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협약식
- 12. 10 국회 정무조정 담당자 면담/제8차 회장단회의/제7차 인사위원회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전문가패널 워크숍
- 12. 11 제8차 상임이사회의
- 12. 13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이사회의
- 12. 15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면담/의료기관의 무면허 진단용 방사선 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요청 공문 발송 (수신: 인천서구보건소)
- 12. 16 춘해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 협약식/보건의료단체협의회 2022-1차 운영위원회의/'방사선사 홍보용 포스터 제작' 촬영
- 12. 17 복지부 X-ray 마커 3차 지원 신청, 제6차 운영위원회 회의
- 12. 18 제6차 윤리위원회의/제2차 보수교육관리위원회 회의
- 12. 20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워크숍
- 12. 21 전국 44개 방사선(학)과 개설 대학교 X-ray 마커 배포/의료기관의 무면허 진단용 방사선 검사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요청 공문 발송(수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 12. 2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회원 설문 참여 공지
- 12. 23 국회 직능단체 간담회
- 12. 24 무면허의료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병(의)원 방문 관련 법률 자문
- 12. 26 제7차 윤리위원회의/복지부 지정연구과제 '방사선사 직업군의 업무상 재해 실태조사' 회원 대상 설문
- 12. 27 송호대학교 지방연수원 협약식, 제3차 법제위원회의
- 12. 28 정책 간담회/경북도회 간담회
- 12. 29 무면허의료행위 실태 파악을 위한 인천 서구 3개 병(의)원 방문
- 12. 30 협력업체 업무 협의/총무부, 재무부 업무보고/방사협보 제작 업체 미팅
- 2022. 1. 3 국회 간담회, 제4차 방사협보편집위원회 회의
- 1. 4 제7차 운영위원회 회의/제8차 인사위원회 회의
- 1. 10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의/정책 자문회의/제4차 법제위원회의
- 1. 13 부산가톨릭대학교 지방연수원 협약식
- 1. 14 제9차 상임이사회의/회장단 회의
- 1. 15 시도회 총회
- 1. 17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회장단 간담회
- 1. 18 국회 간담회
- 1. 20 협회 정기 감사
- 1. 21 제1차 중앙관리위원회의
- 1. 22 시도회 총회
- 1. 24 국회 간담회, 서울방사선서비스 이사회의
- 1. 25 홈페이지 개편 실무자 회의
- 1. 27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면담, 한국의료방사선안전관리협회 운영위원회의
- 1. 28 의료전문지 기자 면담/시도회 총회
- 1. 29 시도회 총회



중앙회 소식

# NEWS



## 제56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성료

2021년 11월 06일(토)

Hybrid, 126주년 세계 방사선의 날 기념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제56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126주년 세계 방사선의 날 기념행사(56th Congress of Korean Radiological Technologists with 126th Anniversary of World Radiography Day)'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세상을 밝힌 방사선 126년, 역사와 미래를 품은 KRTA」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1월 6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온라인&데기호텔 서울)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내외 회원 및 재학생을 포함하여 약 3천 명이 넘는 회원이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 초청 인사로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현장 참석하였고, 김민철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영상으로 축사를 하였다. 또한 ISRRT(세계방사선사협회) 회장을 비롯하여 일본, 대만, 태국, 중국, 마카오 등 각국 협회장들이 영상 및 서면 축사로 행사를 빛내주었다.

학술대회 내용으로는 14개의 전문학회가 총 4개의 채널을 통하여 회원 연구논문과 포스터 그리고 재학생 논문을 포함해서 총 129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초청특강 및 심포지엄, 전시 부스 개관 등으로 회원 간의 상호 지식 함양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 학술상은 이은정(삼성서울병원), 우수 학술상은 노성민(보라매병원), 김예현(서울아산병원) 회원이 수상하였고, 장려 학술상은 나보슬(서울대학교병원), 강동구(아주대학교병원), 민부기(분당서울대학교병원) 회원이 수상하였으며, 최우수 포스터상은 오주영(주식회사 키즈미), 우수 포스터상은 김동준(상계백병원), 명노범(세종충남대학교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또한, 한 해 동안 꾸준한 연구 활동과 훌륭한 논문 발표를 한 회원에게 주어지는 2020년 학술대상은 주영철(삼성서울병원) 회원이 수상하였고, 우수 전문학회상은 대한CT영상기술학회와 대한영상의학기술학회가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이날 행사 중 '126주년 세계 방사선의 날'을 기념하여 마련된 린트겐 어워드에는 이양기 전임회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으로는 김은성(전북대학교병원), 김연민(원광보건대학교), 전민철(대전보건대학교), 윤일규(중앙보훈병원) 회원이 수상하였다. 전문 직업인으로서 방사선사의 자질 향상과 방사선 기술학 연구, 미래 지향적인 협회 발전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 모든 방사선사의 화합과 권익향상을 위해 개최된 제56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는 체온 측정과 문진표를 통해 감염 및 보건 위험 인원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56차 대한방사선사 학술대회 및 126주년 세계 방사선의 날 기념행사의 성료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19의 제약적 환경에도 온라인의 단점을 극복하고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보여줌으로써 성공적인 학술대회를 이끈 학술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학술대회가 학술적 성과와 더불어 국제적 최신 동향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방사선사의 발전과 국민 건강, 나아가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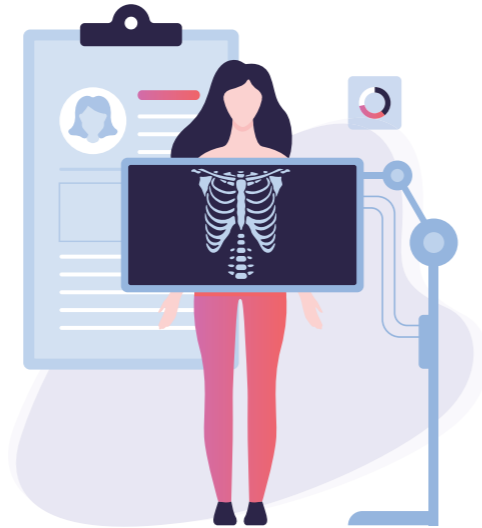


# NEWS

## 중앙회 소식

### 의료기사의 현장 임상 실습 의무에 대한 법률 개정 요구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앞두고 질의 전달  
의료기사의 현장 임상 실습 의무화,  
국민 보건향상에 필수 과제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에게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임상 실습 의무화'에 관하여 질의를 전달하였다.

의료기사(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안경사, 치과위생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면허취득을 위해서 해당 학과를 졸업하여 국가고시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인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만이 교육평가원 제도를 통하여 면허취득 전 임상 실습을 필수로 규정하고, 이외 의료기사의 임상 실습은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이에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인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제외한 의료기사 직종의 임상 실습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의료기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임상 실습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국가고시에 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는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을 하락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면허취득자의 임상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해 중국에는 국민 보건향상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은 '의료기사의 임상 실습'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 개정되어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법적, 제도적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이고 확실한 임상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202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로 제출하고 중요하게 다뤄주길 강력히 요구하였다.

#### 다음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시 질의하여 받은 답변이다

의료기사의 안정적인 면허취득을 위한 현장 임상 실습 규정 신설에 대한 의견에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면허취득 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임상 실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의료기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임상 실습을 통해 의료기사 등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의료기사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료법

- 의료인은 교육평가원 제도를 통해 임상 실습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1에서 현장실습을 필수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 의료기사에 대한 부분은 표시 없음.



김민철 국회의원(우)에게 입법 발의 건의문을 전달하는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 회장 김창규 교수(좌)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시울)의원이 2021년 11월 5일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안 제27조의3 및 제65조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기관에 설치된 X-ray 등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의료법'과 '수의사법'에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설치, 운영 및 관리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방사선 실습을 위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원자력안전법'의 대상으로 간주해 과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44개 대학 중 3개 대학은 방사선 실습교육을 위해 설치하였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폐기하거나 실습 시설을 폐쇄하였고, 다른 3개 대학은 의료법에서 적용한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아닌 원자력안전법에서 제시한 방사선 작업종사자를 등록하여 정상적인 의료방사선 실습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과도한 운영관리비 지출로 실습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제20대 방사선(학)과 교수협의회는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에 방문하여 '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대학 교육기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의료법 적용'을 검토하였다. 이어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협회장과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대학 방사선 실습교육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과 과도한 규제 개선을 위한 협회 차원에서의 전문과 입법 발의 내용에 대한 협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7월 6일 국회의원회관 김민철 의원 사무실에서 '대학 내 방사선 실습교육 정상화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개정 발의 간담회'를 통해 대학 방사선 실습교육 실태 및 안전관리 현황 자료를 근거로 법안 발의를 건의하였다. 이후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고등교육법안을 검토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으로 입법 발의를 결정한 개정안 초안을 9월 30일 김민철 의원 측에 전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1월 5일, 의료기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의료법' 등의 체계와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안전관리기준을 명시하여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 및 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짐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방사선사 출신으로 최초로 국회의원 자리에 오른 김민철 의원은 지난 7월에도 「의료기사 의무기록부의 작성·보존 등」을 촉구하는 법안에 공동 발의하며 방사선사의 권익 신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영기 협회장은 "진단용 방사선기기는 진단과 치료 등 의료 분야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으로 방사선 검사와 이를 다루는 방사선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과도한 규제로 교육 과정에서 X-ray 실습마저 어렵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법안 개정은 대한방사선사협회의 오랜 숙원이다. 실정에 맞는 법안 개정으로 충분한 실습을 거쳐 국민 보건 의료에 기여하는 방사선사로 한층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조영기 협회장과 대담 중인 김민철 의원



중앙회 소식

# NEWS

## 방사선발생장치와 방사선사 매칭 조사

### 무면허 의료행위 발생 가능한 병·의원에 사실확인 공문 발송

제24대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업부는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 인력을 매칭 조사하여 방사선사가 근무하지 않은 병·의원에 사실확인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방사선사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무면허 의료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 리스트를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에 사실확인 공문을 발송하고, 시군구 보건소에 집중 감독을 요청할 예정이다.

방사선사 면허가 없는 자가 수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병·의원과 행위지사, 행위수행자 모두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청주지방법원 2019.04.16. 선고 2018고단3089 등 참고)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서울, 경기, 인천을 시작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각 시도회 시범지역 분회 간담회를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이 외에 많은 회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무면허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방사선사 고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사선사 청구실명제'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근무지가 바뀔 때마다 반드시 회원정보를 변경하여 시도별 시범지역 사업지에 선정된 지역 회원의 지속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무면허 방사선의료행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입안에 소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선정지역 의원, 요양병원 방사선사 비율

시도회	선정 지역	방사선사가 없는 비율
강원도	원주시	51.00%
경기도	고양시	40.00%
경상남도	거제시	38.20%
경상남도	통영시	38.40%
경상북도	영주시	51.70%
광주광역시	북구	43.80%
대구광역시	남구	38.90%
대전광역시	중구	37.90%
부산광역시	사하구	34.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5.70%
울산광역시	중구	33.30%
인천광역시	부평구	45.80%
전라남도	목포시	21.70%
전라북도	남원시	45.10%
제주도	제주시	41.60%
충청남도	태안군	50.00%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50.00%



주국환 인천광역시회 부회장, 이배원 복지이사, 김광순 부회장(왼쪽부터)

##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임원진 현장 방문

### 권익보호위원회, 사업부, 복지부의 발로 뛰는 협회

(사)대한방사선사협회 김광순 부회장(권익보호위원장), 김연민 이사(사업), 이배원 이사(복지), 주국환 부회장(인천광역시회)은 지난 12월 29일 인천 서구의 의원에 방문하여 방사선사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를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 퇴치 및 방지' 실현을 위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업부와 복지부의 협업 활동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협회 회원 정보, 보건소 정보 공개 요청 자료 대조를 통해 방사선사가 근무하지 않는 의원 리스트를 만들어 직접 방문한 것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 시, 사실 확인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 뉴스레터 발송 및 공문 발송과 업무 범위 관련 법령 내용 공지 등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에 따른 조치 결과를 회신받고 있다. 지난해 간호조무사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 접수에 따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담회에 참석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호조무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책과 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방사선사 청구 실명제 기반 마련을 위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방사선사가 상근(근무)하는지 확인하는 현황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협회 회원 정보를 기반으로 회원의 근무지 정보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보를 수집하여 방

사선사가 없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무면허 검사나 의사가 검사했다는 부정청구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받은 병원, 의원 등에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 및 관할 보건소 협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원급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근무 인력 매칭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방문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해당 의원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신고한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였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향후에도 전국 시도회 및 전문학회에 주기적인 협조 요청과 회원들에게 E-mail,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무면허 행위가 발생 가능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방사선사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안정된 고용 창출을 위하여 정진할 계획이다.

김연민 사업이사, 김광순 부회장, 이배원 복지이사(왼쪽부터)



# NEWS

## 3-way 연결, 분리, 조작은 방사선사의 업무

###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은 방사선사 업무 범위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재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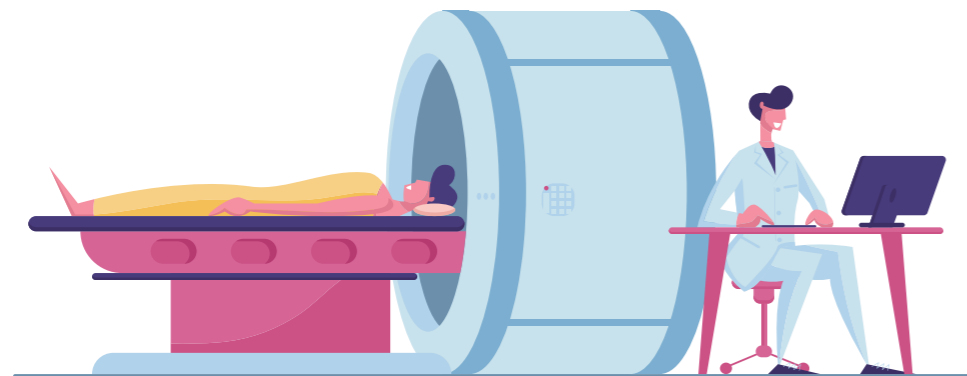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는 지난 7일 **조영제 자동주입기 수행 주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시 3-way 연결, 분리, 조작은 방사선사의 업무**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통해 재확인받았다.

이번 유권해석은 아직도 임상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방사선사들에게 조영제 자동주입기 업무수행 주체가 방사선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인시켜주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유권해석의 검토 결과를 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방사선사는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따라 방사선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방사선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버튼 조작 행위는 동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 관리로 볼 수 있으므로, 자동주입기를 통한 조영제 주입 및 기기 관리는 방사선사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
- 자동주입기를 통한 조영제 주입과 연결 및 분리 업무는 연속성이 있는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지고,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있는 방사선사가 이미 확보된 정맥로에 자동주입기 연결·분리와 조영제 주입행위를 개별행위로 보는 것은 오히려 실제 업무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됨.
- 자동주입기는 규격화된 투여 방법으로 주입된다는 점,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방사선사가 연결 및 분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방사선사가 조영제 사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부작용 발생 시 환자 관리, 응급처치 등 관련 교육을 매년 수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 검사 중 조영제 투입과 관련한 이상 징후 발견 시 상주하고 있는 의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주입기를 통해 적절히 조영제 투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역시 방사선사 업무범위로 볼 수 있음.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방사선사는 조영제 업무수행 주체가 본인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임상전문가로서 환자 안전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NEWS

## (사)대한방사선사협회-부산가톨릭대, 업무협약 체결식... 지방연수원 개설

(사)대한방사선사협회와 부산가톨릭대학교는 1월 13일 대학본부관제1 국제회의실에서 MOU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현판식도 진행됐다. 업무 협약식에서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 윤주호 부산광역시회장, 홍경완 총장, 방사선학과 교수진 등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방사선사 교육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 체결 및 지방연수원개설 현판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을 통해 △지방연수원 활성화를 위한 인적교류 △초음파전문 화교육 과정 개설을 통한 자질향상 △연수원 심화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전문방사선사자격시험 응시자격 부여 등 기타 양 기관의 우호 증진에 필요한 협력 사항을 이어갈 예정이다.



##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 온라인으로 개최

부산광역시회(회장 윤주호)는 1월 22일 14시 온라인(ZOOM)화상회의장에서 '제57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하고 이돈원 대의원의장의 개회사로 총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재적 대의원 총 108명 중 32명 위임장 52명 출석하여 성원된 가운데 지난 일년 간 부산광역시회를 이끈 윤주호 회장이 2021년의 소회를 밝히고, 2022년도 예산편성 및 중점 추진 사업, 회칙개정(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참석 대의원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이 논의된 가운데 2021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회칙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 통과한 안건 및 사업을 기초로 부산광역시회 회원을 위한 정책 집행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방사선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대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 2021 전국방사선사 한마음 쌀 나눔 봉사

부산광역시회는 전국방사선사 한마음 쌀 나눔 봉사행사의 일환으로 2021년 12월 21일(화) 사회복지법인 성애원에 윤주호 부산광역시회장, 부산 금정구 백종현 국회의원, 복지이사, 사무장이 방문하여 성애원 김택수 이사장에게 쌀 20kg 30포를 전달하였다.





# NEWS

## 대구광역시회

###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 제41차 정기대의원총회 온라인 개최

코로나 19 확산으로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권덕문)는 1월 25일(화) 오후 7시 대구보건대학교 영송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제41차 대구시의원총회를 온라인 줌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서정현 의장은 초음파 교육 지방 연수원 개설을 다시 한 번 축하하며, 2022년 최선을 다하는 프로그가 되어 멋지게 함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회무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진행하였으며,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그리고 회칙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정부방역수칙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1차 정기총회는 스튜디오 준비부터 영상 송출까지 총회 전 과정을 임원진이 참여하여, 새로운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상복부 초음파 전문화 교육

대한방사선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권덕문)는 2022년 상복부 초음파 전문화 교육을 대구보건대학교 초음파교육 지방연수원에서 2022년 1월 8일부터 2월 27일까지 8주간 총 87시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1차 심장초음파 교육의 성료를 이뤄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1월 8일 상복부 초음파 전문화 교육 첫날, 대구광역시회 권덕문 회장을 비롯한 여러 임원과 초음파 강사 및 교육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사선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2022년의 첫 발을 내디뎠다.

2021년 5월 9일 개설한 대구보건대학교 지방연수원은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방사선사의 전문적인 연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신 시설의 초음파 실습실과 고성능의 삼성 RS80A, GE LOGIQ S6, PHILIPS HD11 등 모두 10 여대의 장비와 초음파 교육용 시뮬레이션장비(ULTRASIM), 상복부, 산부인과, 유방, QC/QA 팬텀 등을 구비하여 모든 초음파 교육이 현장 실무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다.



# NEWS

## 인천광역시회

### 신축년 한 해를 보내며, 풍성한 인천 겨울

눈꽃이 만발하는 겨울 움츠러들 만도 하지만 인천광역시회는 오히려 왕성한 회무를 진행했다. 인천광역시회는 신축년이 마무리되기 전 크게 다섯 가지 활동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2021년 11월 13일(토)에 인천광역시회 회관 개관식과 중앙연수원 인천 분원 개원식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장, 노지숙 연수원장, 원로회원 등 많은 분들로부터 보다 특실한 인천광역시회 활동을 위한 축하 말씀이 전해졌다. 오랜 시간 염원한 보금자리인 인천광역시회 회관이 생김으로써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 및 행사를 더욱 더 내실 있게 치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로 2021년 제5차 보수교육이 11월 20일(토) 14:00~18:00까지 진행되었다. 필수교육 1시간을 포함한 4시간 동안 297명의 회원들이 이제는 일상이 된 온라인 보수교육을 잘 마쳤다.

세 번째로 중앙연수원 인천분원으로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심장초음파 교육 과정을 총 20명의 회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였다. 12월 4일 개강하여 12월 26일 수료식까지 총 48시간 주말마다 배움의 열정으로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초음파 장비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임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듯하여 뿌듯함을 느끼는 자리였다.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회 16대 집행부는 한해를 마무리하기 전 21년 회무활동을 되돌아 보고 22년도 사업 계획을 확인하는 임원 워크숍을 12월 8일(수)에 회관에서 진행하였다 당초 4일(토)에 진행하려 했으나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다섯번째로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일상 속에서 인연을 엮어가는 SNS를 통해 회원간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협회 활동 등에 관련된 소식들을 한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오픈했다. 오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팔로워 수가 100여 명이 되었다. 이로써 소통하는 인천광역시회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이 외에도 의료기사 연합회 회의를 12월 7일(화)에 회관에서 진행하였고 인천 중구청에 지역주민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성공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며 협회 회원, 타 협회 회원, 지역 주민들까지 행복과 미래를 함께하는 인천광역시회가 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렇듯 인천광역시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씬 없이 달려 많은 결실을 맺은 신축년 한 해를 보냈다.



# NEWS

##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회장 구혜정)는 2022년 1월 22일(토) 양재동에 위치한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의실에서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ZOOM 화상회의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안건에 대한 보고 및 승인과 더불어 제17대 감사 선출이 이루어졌다. 2022년 1월 1일부로 공식적으로 출범한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제17대 구혜정(삼성서울병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협회의 정책 연대와 회원 권익 보호에 대한 부분에 힘을 쏟을 것을 전했다. 또한 당장 현실적인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구회장은 새로 선출된 17대 학회 임원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구회장의 인사말에 뒤이어, 제17대 임원진에게 위촉장을 수여

하였고, 임원진 대표로 학회 운영의 노고를 치하하며 제16대 김현진 회장, 서재혁 부회장, 강선희 총무이사에 감사패 증정이 이어졌다.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는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학회의 한 해를 정리하고 학회 운영계획 및 부서별 사업계획안을 공유하며 학회 발전을 위한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5대 회장 남궁장순, 제16대 총무이사 강선희 선생님이 감사로 선출되었다.

임인년 새해를 맞아 새로이 출범한 17대 대한초음파의료영상학회 구혜정 회장 및 임원진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바이다.



# NEWS

## 2021년 조영제 안전관리 연수강좌 개최

대한CT영상기술학회(회장 김정훈)는 지난 2021년 10월 16일과 조영제 안전관리 연수강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수강좌는 라이브 강의 진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감염자 수 급증으로 아쉽게도 사전 동영상 녹화 송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수강좌의 진행을 위한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진행하는 등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였다.

강좌는 총 4교시로 진행되었으며, 1교시 조영제 과민반응 예방(서울대학교병원 약물 유해반응관리센터 강혜련 교수), 2교시 Safety of Iodine contrast media: Lesson from the old and new studies(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이활 교수), 3교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약품안전관리원 기대운 대리), 4교시 CT검사 시 환자안전(서울대학교병원 김은성 방사선사) 등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이슈화되었던 조영제 사용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강좌 후 진행된 Q&A 시간을 통해서 서로의 의견도 교류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장이었다. 이번 강좌는 조영제 주입에 따른 “환자안전 주의 경보 재발 방지

를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사용을 제한하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영제 교육 Certification을 발급하여 총 306명이 강좌를 신청하였다. 또한 강좌에 관심을 보인 각 병원의 간호사 선생님들도 66명이나 청강 신청을 하는 등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방사선사의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시 3-way를 연결 또는 분리하는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하여 의사의 판단 및 지도 감독 하에 방사선사가 조영제 자동주입기 연결 및 분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는 등 조영제 사용에 있어서 방사선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만큼 임상에 있는 많은 회원들의 관심도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앞으로 조영제 안전관리 연수강좌의 역할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대한CT영상기술학회는 지난 11월 6일 대한방사선사학술대회에서 그동안의 학술사업 및 우수한 논문 업적 그리고 방사선 기술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 전문학회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협회장



(사)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

**Q1** 고령화, 만성질환, 감염병 확산에 따라 급격한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겪으며 보건의료 인력의 핵심적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의료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Health Information Manager, HIM)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의 분석, 보건의료정보의 전사(轉寫), 압 등록, 진료통계 관리, 질병·사인·의료행위의 분류와 그 밖에 의료기관에서의 의료 및 보건지도 등에 관한 기록 및 정보의 분류·확인·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의료정보화에 발맞추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의료데이터가 병원, 지역사회, 국가 및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발생

시점에서부터 데이터 폐기까지 데이터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데이터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발전과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보건의료정보 표준전문가, 보건의료정보 분류전문가, 보험정보 관리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건의료정보 분석전문가, 보건의료정보 정책자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조직의 역량강화, 협회의 재정안정화, 홍보강화, 대외협력강화, 법제도 개선, 회원 교육강화, 대학생 교육강화, 보건의료정보관리부서의 업무변화, 학생들의 진출경로의 다각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발전과 권익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보건의료정보 표준전문가, 보건의료정보 분류전문가, 보험정보 관리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건의료정보 분석전문가, 보건의료정보 정책자문가로 거듭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Q&A

**Q2** 현재 의기법 상 업무 전달 체계를 “지도”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법안과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검사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는 지도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것이 국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회원 및 관련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Q3**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나 비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021년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통과되어 2022년 4월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관리 업무가 중요시됩니다. 데이터 관리 업무를 학문적인 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유일한 분야가 보건의료분야입니다.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 관리의 방법론을 다른 분야의 데이터 관리에도 활용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종래의 데이터 관리 업무였던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폐기 등에 데이터 교류, 데이터 가명화, 데이터 큐레이션, 데이터 분양, 데이터 거래, Data Driven Healthcare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할은 데이터 관리 업무가 확대되고 진출 영역도 보건의료 영역을 넘어서 전 산업의 데이터 관리 업무로 확대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에서는 새로이 학문체계를 정비하고, 기존의 협회의 교과서를 새로운 학문체계에 근거하여 개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 및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Q4**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료서비스 기술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같은 의료기사인 방사선사 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의료기관에서 관리되는 데이터 중 가장 용량이 큰 데이터는 영상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영상 데이터의 양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가하는 영상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방사선사 업무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고유의 업무에 더해 영상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 만나고 싶었습니다!

## 녹조근정훈장 수상 서재룡 방사선사



**Q1** 서재룡선생님, 안녕하세요? 본인의 약력 및 경력 그리고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988년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여 1990년 첫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다 공무원으로 1991년 11월 서울특별시에 입사하여 현재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사선사로 입사하였기에 주로 보건소와 시립병원에 순환 근무하며, 임상 업무와 행정업무를 하였습니다. 저는 의료기관 관리 업무를 13년, 일반 행정사무 등 주로 행정업무를 수행한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방사선사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보건대학원 보건학을 전공하고, 위생사, 사회복지사, 보건교육사, CT전문방사선사,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활용하였습니다.

**Q2** 지난 12월31일 “녹조근정훈장”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방사선사로서 이 상은 어떤 상인지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각하지 않는 큰 상을 재직 중에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관 승진 후 바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되어 2020년 8월 서울시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이 만들어 지고 첫 근무와 2021년 시립병원운영팀에 근무하면서 전담병상 및 서울시생활치료센터 17개 의료지원반 운영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격려라 생각합니다. 사실 부서원 전부가 번 아웃 상태가 되어 가는데 혼자 업무를 다한 것처럼 수상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부끄럽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서울시 25개 보건소 및 3개 직영시립병원에 1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9급으로 필기, 면접시험을 통해 공개 채용함)

아울러 서울시 본청 전 직원 약 6,000명 중 방사선사 2명이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는 코로나19 확진자 병상 배정, 예방접종, 전담병상 확보, 임시선별진료소 운영, 서울시 전체 의료기관 코로나19 감염 관리 등 코로나19의 핵심 부서로 2년간 코로나19 대응에 지쳐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도 현장에서 전담병상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환자 검사로 힘들시겠지만, 의료인이 아닌 일선 현장공무원들도 휴일 없이 2년째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나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갑작스러운 수상이라 그런지 솔직히 아무생각이 없다가 부서장님이나 동료 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다들 고생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혼자 업무를 다한 것으로 비쳐질까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2년간 코로나19 대응과 일상 업무 병행으로 지친 분들과 잠시나마 수상 기념으로 식사하며,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좋았습니다. 수상의 기쁨보다는 책임감이 더 느껴지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다 시금 충전하여 코로나19 종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Q4** 최근 업무 변경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게 되나요?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2020년 8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코로나19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공동상황실을 설치하여 서울시, 경기도, 인천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공동상황실을 운영하며 수도권 확진자 모두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22.1.5.부터 여기에 근무하면서 서울시 전체 확진자 병상 배정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확진자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병상 배정과 중수본과 협력하여 각종 지침 및 상황을 공유하게 됩니다.

병상 배정에서 어려운 점은 입산부, 정신질환자, 그리고 어린이들입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병상 배정 후 확진자들이 특정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고집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부와 가족들이 같은 장소에 입원 및 입소를 희망하지만 확진자 질환 상태 및 특성에 맞게 병상 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정

병원을 고집하는 경우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여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Q5** 그동안 방사선사 회원으로 중앙회 및 시도학회 그리고 전문학회에서 많은 기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사선사 회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방사선사는 전문직입니다. 전문직의 특성은 어쩌면 자기 분야에 최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분야는 잘 모르는 즉 비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방사선사로서 최고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복합적으로 가져 보면 좋겠다고 평소 생각하게 됩니다. 거창한 타 분야가 아닌 인문학적인 소양을 쌓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 자칫 전문가들의 특유의 고집만 키워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전문지식 축적과 동시에 인문학적인 자기만의 철학도 함께 키워가며 주변과 잘 어울리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최근 저는 방사협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우리 방사선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고 방사선사로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방사선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길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후기 ❶

## 신뢰 받는 방사선사를 꿈꾸며!

정동석(가야대학교)

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49회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수석 합격한 가야대학교 방사선학과 정동석입니다. 저는 방사선사라는 직종에 몸을 담고 있는 가족의 영향으로 방사선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교과과정들이 저에게는 어렵게 다가왔고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기에 휴학을 하고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 복무 도중 진로 적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전공 관련 서적들을 읽으며 학문에 흥미를 붙일 수 있게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학 후 그동안의 노력들이 학교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고, 자연스럽게 학문에 흥미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방사선사라는 직종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전문성이 뛰어난 방사선사가 되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 국가시험 준비 중 어려웠던 점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당시 배우는 과목들을 깊게 공부했습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는 소수의 과목이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국가시험은 20과목에 가까운 과목을 준비해야 하기에 시간적으로 많이 쫓겼습니다. 어마어마했던 양 때문에 공부를 해도 까먹는 일이 생겨 최대한 지식을 유지하려고 했고, 문제집, 모의고사를 병행해야 돼서 잠을 자는 시간 빼고는 대부분 공부에 시간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던 내용이 있었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지만 그럴 때마다 귀찮을 정도로 학과 교수님들께 찾아가 질문을 했습니다. 꾸준한 질의응답 덕분에 많은 지식이 쌓였습니다. 이것들을 학과 동료들에게 공유하려고 노력한 결과 머릿속에 정리되어 수석 합격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약집만 보거나 문제만 달달 외워서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고시는 기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요약집이나 문제만 달달 외우는 것이 아닌 책을 통해

본인이 학습하고 정리하여 국가시험의 좋은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닌 방사선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느꼈던 소감

방사선사가 되기 위해 4년을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꾸준하게 오르는 성적 때문에 공부에 흥미가 생겼지만 나중에는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다 보니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시험 전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주변에서 “수석 하는 것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저에게는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석에 대한 집착을 최대한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국가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전문성을 향상시켜 환자나 병원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방사선사가 되자는 마인드로 학과 공부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사해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병원 내에서 신뢰받는 방사선사가 되고 싶습니다.



2021년도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  
합격후기 ❷

## 스물 일곱, 입학 그리고 합격까지

이혜은(동의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동의과학대학교에서 3년간 공부하고 2021년 제49회 방사선사 국가시험에 응시한 92년생 이혜은입니다. 간호조무사로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다 미래를 위해 커리어도 쌓고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대졸자 전형으로 27살에 학교에 입학하여 방사선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현재 구인구직 중에 이 글을 적어 봅니다.

1학년 때에는 학교 수업을 들으며 자격증을 공부하고,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다시 대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자격증 공부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서 수업이 없는 1학년 때 경험해보았습니다. 2학년 때에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며 공부했고, 졸업반인 3학년에는 학교 공부와 국가고시 준비를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찬 바람 불 때 공부를 시작하면 늦는다고. 국가고시 D-day가 다가올수록 긴장되어 공부가 잘 안되니 여름방학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된다는 말이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이 지나고 모의고사를 치면 전체 점수와 등수가 공개됩니다. 첫 모의고사에는 100점 이하였지만 점수가 부족한 과목을 한 과목씩 정복하면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몇 점 차이로 불합격했지만, 국가고시에서는 합격했습니다. 목표는 국가고시 수석이 아니라 합격이었으니까요.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공부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았던 점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도 준비했지만, 과목이 많은 의료기사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처음이라 다른 친구들에 비해 더 많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문제도 많이 풀어보아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던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로 인해 학교 도서관 개방시간이 짧았고, 집 주변 도서관도 잘 개방하지 않아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적었던 점입니다. 그에 반해 감사한 점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공부할 수 있

는 장소가 적어서 매일 학교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부를 물어보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강의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친구들을 챙기고, 과외선생님처럼 옆에 붙어서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여름방학 때 한 친구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가르쳐 준 덕분에 국가고시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친구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 친구 외에도 저의 공부를 도와주었던 여러 친구들에게도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도 강의실을 둘러보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셨습니다.

여름방학과 10월달에는 국가고시 특강을 하러 오시는 다른 교수님의 수업도 들었습니다. 특강 수업을 들으면 그날 받았던 자료로 그 한 과목만 공부했던 게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국가고시 시험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던 때에는 풀어보던 문제집을 계속 눈으로 풀었습니다. 문제집을 풀어보며 특강자료나 정리본을 계속 찾아보고, 계속 틀리는 문제와 이론을 태플릿 PC에 사진을 찍어 두어 시험장에 가서도 쉬는 시간 때 계속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이론은 같은 시험장 교실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쉬는 시간에 물어보곤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합격문자를 받은 지금은 취업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면 지식을 쌓기 위해 공부했던 열정을 가진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제가 방사선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무하겠습니다. 또한 제 글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❷

# RT의 격

글 조규태

먼 옛날 천진스러운 추억이 자꾸만 떠오르는 건 왜일까.  
누구나 가져본 오늘의 일과 중 하나일 거다.

홀로 가진 추억 속에 입가의 미소로 다음 장을 남겨보지만  
덧없이 지나온 그 옛날과 오늘이 티격태격 앞뒤로 겹쳐오는 건  
별 볼 일 없는 지난날의 내키지 않는 한 장의 일기장 구절 아닌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푸른 하늘 쳐다보며  
지금울 즐기자는 편으로 핸들을 돌린 자동회전 시간을 보내는 나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위치다.

왜일까... 하고 골때리는 상념에 젖은 오늘도 답을 못 찾는다.  
정답이 없는 게 어디 이 뿐이겠는가.

방사선사여!  
RT직업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은 알기가 힘들어도  
가까운 훗날 지나온 날들이 떠오를 때 느끼리라.  
행복하였다고,  
방사선사였음이,  
바늘에 실 꿰듯한 격(格)이지만...

# 건강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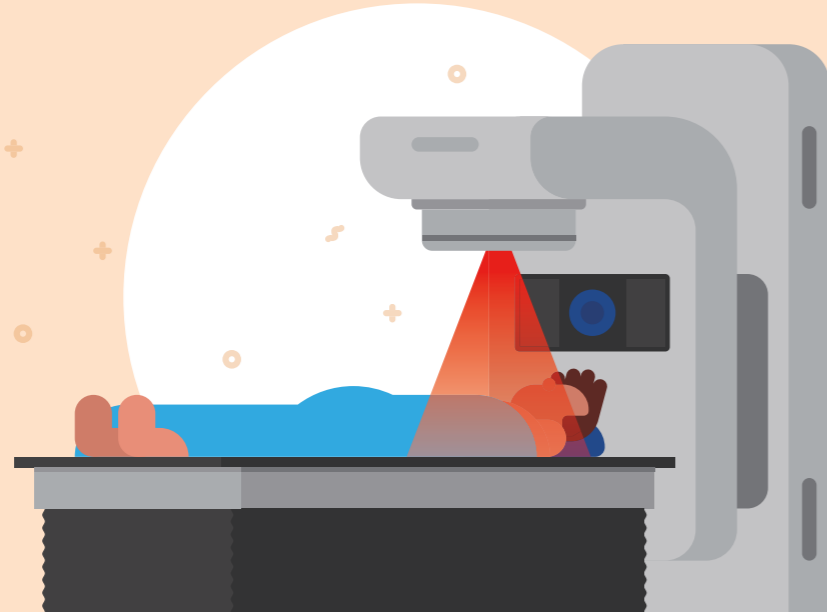
KRTA의 활동과 나아갈 길

- 26 Scene of KRTA  
다녀왔습니다!  
2021 의원급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인력 매칭(대조) 조사
- 30 Guide  
질병관리청,  
2020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
- 32 Hospital Diary  
코로나 2년, 그리고 방사선사
- 38 Together  
코로나 시대와 CS

# 다녀왔습니다! 2021 의원급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인력 매칭(대조) 조사

협회 사업부에서는 2021년부터  
“의원급에서 보유한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인력 매칭(대조) 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방사선발생장치가 있는 의원 중에서 방사선사가 없는 의원 명단을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는 사업이다.  
KRTA는 지난 2021년 12월 인천광역시 3개 의원을 방문하고 왔다.

글 김연민 사업이사



## 2021년 경과보고

- 전국 방사선발생장치 리스트 확보
-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방사선사 정보공개 요청 완료하여 근무자 파일 확보
- 우리 협회 회원정보에서 방사선사 근무자 파일 확보하여 매칭 조사
- 각 시도회별 1개 지역 시범사업지로 선정 완료
- 각 시도회별 시범지역의 방사선발생장치와 근무인력 매칭 조사하여 방사선사 없는 의원 리스트 작성 완료
- 시범사업지 중 인천광역시 서구, 57개 의원에 사실확인 공문발송(방사선사가 근무하는 경우 협회 회원정보 업데이트 요청).  
내용: 방사선사의 면허가 없는 자가 수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의원과 행위지시자, 행위수행자 모두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청주지방법원 2019.04.16. 선고 2018고단3089 등).
-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에 공문 발송: 서구 지역 방사선사가 없는 의원에 집중 관리 감독 및 시정조치 요청. 57개 의원 리스트 첨부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공문 발송: 서구 지역 방사선사 비 근무 의원에 관리 감독 및 보험 청구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 시 참고 요청. 57개 의원 리스트 첨부함
- 법률자문: 병(의)원 실태 파악 위해 방문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자문 받음
- 인천광역시 서구 3개 의원 현장 방문: 실태 파악 및 면담, 인천광역시회 임원과 간담회

2021년 12월 29일 협회 차량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3개 의원을 방문하였다. 중앙회에서는 필자와 김광순 부회장, 이배원 복지이사가 참석하였고,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주국환 부회장이 함께 동행했다. 관할 보건소와 보험공단 담당자를 대동하여 의원에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협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요청하는 내용인 관계로 동행을 고사하였다. 무면허의료행위 신고가 되지 않는 한 동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실태 파악을 위해 우리 협회가 임의로 의원에 방문할 경우에 우려되는 법적 문제를 협회 자문변호사에게 물어보았다. 결론은 “통상적으로 출입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목적으로, 또는 병(의)원의 동의를 받아 들어가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들어가 무면허의료행위의 사실을 파악하거나,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소란이 발생하는 것은, 귀 협회에 그러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

에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주거침입, 업무방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내용이였다. 그래서 방사선사 근무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협조 요청의 공문을 전달하면서 “방사선사의 면허가 없는 자가 수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병(의)원과 행위지시자, 행위수행자 모두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청주지방법원 2019.04.16. 선고 2018고단3089 등)을 알려드리오니, 무면허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의 위 내용을 설명하고 원장 혹은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A 정형외과 의원은 방사선사가 근무하고 있어서, 본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정보의 업데이트를 요청하였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A 의원은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C-Arm형 엑스선장치(디지털),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Dual-Energy (Photon) Absorptiometry),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디지털영상처리장치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B 정형외과 의원은 원장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사가 직접 방사선검사를 한다고 하였다. B 의원은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C-Arm형 엑스선장치(디지털), 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Dual-Energy (Photon) Absorptiometry), 범용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C 정형외과 의원은 원장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의사가 직접 방사선검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의사는 만나지 못했다. C 의원은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QUS)를 보유하고 있었다. 직원은 종이 진료 서식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1일 20명 내외의 환자를 진료하여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존폐를 고민해야 할 지경이라며 고충을 토로하였다.

표 1은 3개 의원의 방사선과 관련 장비 보유 현황이다. 방사선 발생장치와 근무 인력 매칭 시 장비수를 고려하여 조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A의원처럼 관련 장비 숫자가 많은 경우는 관리 대상으로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겠다.

한편 “검진기관의 의료인력 기준에 방사선사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내원검진만 실시하는 의원은 1일 평균 검진 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방사선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고 2019년에 개정되어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방사선사가 없는 57개 의원 중에 30개 의원은 검진기관이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회 시범지역에도 방사선사가 없는 의원과 검진기관 리스트를 이용하여 무면허 방사선검사가 없는지 지속적인 사실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정관 제8조(의무) ③ 정회원은 매년 11월 중 그 실태와 취업현황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심평원 자료에서 의원급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9,745명, 협회 회원 정보에 등록된 의원에 근무하는 방사선사수는 6,824명, 이 중에 2021년 회비 납부자수는 2,744명 이었다. 약 2,900명의 회원이 취업 현황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우리 회원들은 반드시 매년 회원정보 업데이트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표 1) 요양기관 방사선사 관련 보유 장비 명세서

요양기관명	장비대분류명	장비세분류명	모델명	장비허가번호	장비수
A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AccuRay 525R	제허02-379호	1
	C-Arm형 엑스선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디지털)	ZEN-2060 Pro	제허03-239호	1
	골밀도검사기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	osteodoctor	제허12-644호	1
	초음파영상진단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E-CUBE 15	제허12-924호	1
	컴퓨터영상처리장치	컴퓨터영상처리장치	CR30-X	수허07-392호	1
	컴퓨터영상처리장치	컴퓨터영상처리장치	REGIUS SIGMA	수신11-703호	1
	디지털영상처리장치	디지털영상처리장치	Galaxy R	제허14-1376호	2
B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디지털)	GXR-C52SD	제허14-963호	1
	C-Arm형 엑스선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디지털)	ZEN-2090 Pro	제허03-239호	1
	골밀도검사기	양방사선(광자) 골밀도 검사기	FALCON	제허04-262호	1
	초음파영상진단기	범용초음파영상진단기	E-CUBE 9	제허10-1247호	1
C	일반엑스선촬영장치	일반엑스선촬영장치(아날로그)	LX 7	제허09-425호	1
	골밀도검사기	초음파 골밀도 검사기(QUS)	OsteoPro UBD 2002A	제허02-458호	1

다음은 57개 의원에 보냈던 사실 확인 공문에 대하여, 4개 의원에서 받은 회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❶ **가정의학과 의원:** 의사가 직접 검사한다는 내용과 TLD 사진을 첨부해 회신 도착
- ❷ **내과의원:** 의사 2인과 방사선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방사선 관계종사자로 3인 모두 등록된 사진을 첨부해 회신 도착, 방사선사 회원 정보 재중
- ❸ **재활의학과 의원:** 방사선사 근무 중으로 회신 도착, 첨부 자료 없음
- ❹ **의원:** 영상의학과 의사가 직접 검사, 첨부 자료 없음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방사선검사를 포함한 병원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이다.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사가 아닌 직원에게 부당하게 방사선검사를 지시하는 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이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사건 2007누14710, 2007누14727(병합)).

건보공단 관계자는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된다. <관련부서> 의료기관지원실 033-736-4476

2022년에는 전국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와 같은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도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리는 바이다. 더불어 KRTA 회원과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의 권익 신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일반인에게도 무면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니 많은 홍보와 성과를 기대하는 바이다.❶

변호사 자문 내용

통상적으로 출입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목적으로, 또는 병(의)원 측의 동의를 받아 어떠한 병(의)원에 들어가서 무면허의료행위의 사실을 파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출입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들어가더라도 병(의)원 측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목적으로 병(의)원에 들어가 무면허의료행위의 사실을 파악하거나, 그 과정에서 물리적인 소란이 발생하는 것은, **귀 협회에 그러한 사실을 적발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에 부여되어 있지 않는 한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는 무면허의료행위 사실의 파악이라는 방문의 목적을 밝히지 않고 진료의 목적으로 방문하여 무면허의료행위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나,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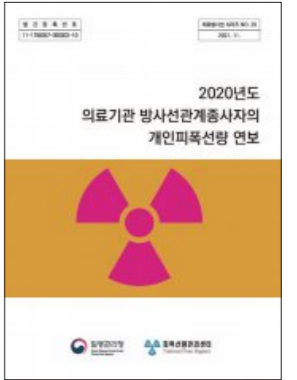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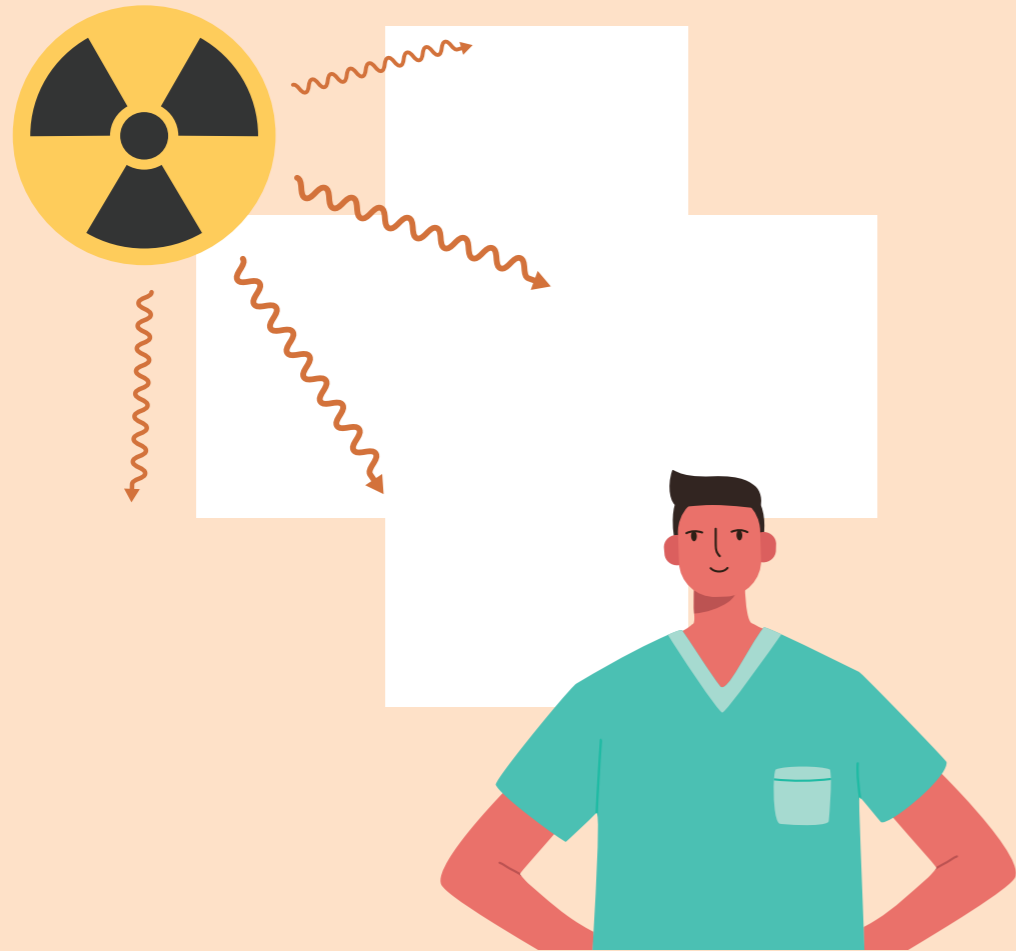
또한 **귀 협회의 사실조사가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취득한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그러한 경우에 침해된 사적인 이익과 그 증거를 사용할 공적인 이익을 비교하여 침해된 사적인 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면 증거로서의 사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8도3990 판결). 물론 무면허의료행위라는 문제는 공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하여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문제제기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질병관리청, 2020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종사자 개인 피폭선량 연보 발간

글 송대영(세종충남대학교병원)



연보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www.kdca.go.kr) 에서 받아 볼 수 있다.

**2020년 국내  
의료방사선 종사자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이  
연간 한도 기준  
100분의 1 이하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해 11월, 2020년도 의료기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연보에 따르면 2020년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40mSv로 연간 선량한도(50mSv)의 100분의 1이하였다.

이는 전년보다 11%나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외국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독일 0.32mSv, 프랑스 0.25mSv, 영국 0.066mSv, 일본 0.288mSv, 캐나다 0.07mSv 등으로 한국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 의료방사선 종사자 중 분기별 피폭선량이 5mSv를 초과하여 주의 통보를 받은 종사자는 709명으로 전체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0.7%였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전체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 개인 피폭선량 평생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전국 시·도 보건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무결점 피폭선량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체 방사선 관계 종사자 중의 개인 방사선 피폭선량 자료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5개 측정기관에서 매 분기 질병관리청 피폭선량관리센터로 보고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피폭선량관리센터에서는 측정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생관리하고 있다. ④

표 1) 2016년 ~ 2020년도 방사선관계종사자 현황

단위: 명 (%)

직종 \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방사선사	24,756	25,797	26,991	28,476	29,668 (30.34)
의사	17,292	18,251	19,539	20,539	21,667 (22.15)
치과의사	17,111	17,769	18,248	18,950	19,210 (19.64)
치과위생사	10,086	10,791	11,452	11,897	11,916 (12.18)
영상의학과전문의	1,643	1,757	1,835	2,271	2,315 (2.37)
간호사	6,819	7,441	8,374	9,382	10,075 (10.30)
간호조무사	1,406	1,491	1,594	1,807	1,841 (1.88)
업무보조원	235	211	206	240	242 (0.25)
기타	765	765	786	813	867 (0.89)
합계	80,115	84,273	89,025	94,375	97,801 (100)



방사선사 이동윤

## 코로나 2년, 그리고 방사선사

글·사진 김홍식(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잠시 스쳐갈 듯 보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델타에 오미크론까지 변이에 변이를 거듭하며 연일 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며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같은 2년 동안 국내에서는 약 71만 명이 감염됐고(2022년 1월 19일 기준), 이 가운데 6,452명이 숨지는 동안 나는 방사선사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년 전, 대구시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으로 인해 감염 환자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고 전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맞았을 때 한국보훈복지 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은 2020년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나흘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월 27일부터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시작했다. 격리병동 업무 투입이 결정되고 나는 도망치듯 짐을 챙겨 집을 떠나야했다. 당시는 바이러스에 대한 엄청난 공포심으로 인해 확진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감염환자가 있는 곳에서 일하는

“며칠 걸리지 않을 거야. 금방 올게.”라는 가족과의 약속은 결국 지킬 수 없었다.

것만으로도 기피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런 죄(?)로 인해 아이들까지 손가락질 받을까 걱정이 앞서 모두를 지키고자 기약 없는 이별을 선택해야만 했다. 그렇게 각자 집을 떠난 나와 동료들은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해 후배의 집에 얹혀 지내거나 삼삼오오 모여 원룸을 겨우 얻어 짐을 풀 수 있었다. 첫 근무에 앞서 수도 없이 반복했던 Level-D 방호복 착·탈의였지만 정작 격리병동 투입 시간이 가까워지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으로 2월의 한 겨울에도

땀이 흥건했다. 긴장한 후배 앞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무려 2시간 동안 호흡을 맞춘 후 비로소 격리병동 이중 유리문을 넘을 수 있었다. 평소 오가던 익숙한 공간이었지만 낯선 상황들에 노출된 우리들은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확진자의 입원행렬에 탈진 직전까지 가서야 겨우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충분히 준비할 겨를 없이 국가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으로 인력도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방사선사 최재욱

인해 격리병동 업무 외에도 지원 업무를 위해 방사선사 투입이 절실했다. 퇴직을 앞둔 선배들은 병원 이용객의 출입 관리를 위해 로비로, 또 다른 이는 부족한 환자이송업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확진자 출입구로 향했으며 네 일, 내 일 없이 쓰임이 필요한 곳 어디에서든 방사선사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업무를 훌륭히 소화해 냈다. 물자 부족 또한 큰 문제였다. 전쟁터에 나서야 하지만 무기가 부족한 상황. 페이스 쉴드는 생산량이 사용량을 따라가지 못

해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현장에서는 일회용을 소독해서 재사용해야 하는 옷지 못할 상황이 생겨났다. Level-D 방호복 역시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은 사치였다. 큰 덩치를 사이즈가 작은 방호복 속에 옥여넣어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팔을 구부리지 못해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수 없는 상황에도 검사를 이어나가야만 했다. 끝없이 이어지던 고통의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전국에서 보내 온 응원의 마음이 병원 현관에 한가득 도착했다. 아이의 돌잔



방사선사 이영주, 김동희

**끝없는 고통의 순간에도 기적의 꽃은 반드시 피어난다.**

치를 기부로 대신한 어느 부부, 생업을 잠시 접고 손수 음식을 만들어 보내주신 소상공인, 용돈을 아껴 머리핀과 헤어밴드를 보내준 학생, 그리고 고사리 손으로 꼭꼭 눌러쓴 ‘혼자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격리병동 업무 시작 11일 만에 드디어 첫 번째 완치자가 퇴원을 했다. 모든 의료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기에, 지쳐가는 가운데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한없이 감사했으며 위로를 받는 하루였다. 이렇게 환자들

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 둘씩 퇴원하다 보면 나도 곧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에 다시 한 번 힘을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겨울을 지나 봄이 오고 여름에 가까워짐에 따라 체력적인 부담은 더해졌다. Level-D 방호복 속으로 흐르는 땀은 점점 늘어갔으며 보호안경 너머 희뿌연 시야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힘들었고 검사실을 가득 메운 이동형 음압기의 엄청난 소음과 거칠게 들리는 내 숨소리가 녹록하지 않은 하루임을 증명해 주



방사선사 서진교



방사선사 서영상, 염혜정



방사선사 백해인



방사선사 장재필

었다. 입원실 너머로 쌓인 눈이 녹고 빗꽃이 필 때까지 환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변화된 것도 있었다. 선·후배 방사선사 동료들과 힘든 시간을 함께하며 세대와 차이를 넘어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와 격려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방사선사입니다.’**

2년이 지났지만 코로나19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다. 우리는 24시간 대기하며 언제든 검사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격리 병동으로 달려갔으며 그 안에서 흘린 땀방울 만큼 의미 있는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 감염과 방사선 피폭의 위험에 맞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Level-D 방호복 위에 입은 10kg에 달하는 방사선 방호복의 무게를 견디며 검사를 하고 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서는 350kg의 이동형 방사선 장비와 차폐막을 끌고 병실로 향한다. 감염의 두려움 앞에서도 검사를 위해서라면 환자를 안아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나의 안위를 살피기 보다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아 집으로 돌아갔지만 지금 ‘희망’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코로나19 현장에서 ‘방사선사’라는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들이 함께 있기에 걱정보다는 기대가 앞선다.

마지막 환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방사선사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한다. **K**



**방사선사 김홍식** —— 지난 2년간 방사선사로서 그리고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COVID-19 바이러스 발생 후 대규모 혼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방사선사진(Radiography)과 사진(Photography)으로 기록했다. 과거 속으로 사라지는 유한한 기억의 꼬리를 붙잡아 오늘의 우리가 어떤 모습과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남기자 격리병동 근무가 없는 날이면 사진기를 들었다. 전담병원 격리병동과 생활치료센터를 기록해나간 이야기는 어느덧 3만 장이 넘는 사진으로 남아 그토록 치열했던 우리의 모습을 알리는 기회가 되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의 실상을 가감 없이 전하고 이를 통해 경각심과 극복을 위한 용기를 전하고자 노력했다. 한 장의 사진이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우리의 이야기가 멀리까지 온전히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코로나 시대와 CS

글 이형섭(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CS(Customer Service)란, 시장 점유율 확대나 원가 절감이라는 경영 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의 만족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삶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아무 곳도 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일터인 병원엔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이 많이 계시므로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그 어떤 곳보다도 중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많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일하게 되었고,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진 채로 환자를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는 근무자의 목소리 등 제한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근무자의 태도가 불친절하다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근무자가 웃으며 환자를 대해도 보안경이나 마스크에 표정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방사선사들은 새로운 환자와 접촉하는 빈도가 병원 내 타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 병원 내 CS(Customer service)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CS(Customer service)란, 시장 점유율 확대나 원가 절감이라는 경영 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고객의 만족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즉, 고객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것에서 기업의 존재 의미를 찾고 이를 통해 고객들이 계속해서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여 기업의 이윤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경영 목표는 기업체의 경영 목표와는 다릅니다. 기업의 경영 목표는 원가 절감이나 시장 점유율의 상승, 가격 차별화 등으로 기업의 최대이윤이 실현 목표인 반면, 병원의 경

영 목표는 질 높은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 서비스의 질이 중요하게 대두되는 병원에서는 CS는 가장 중요한 경영 전략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직원의 친절함이 아니라 의사의 실력이나 명성, 평판만을 보고 어느 병원에 갈지 결정하기에 직원의 친절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가지는지 평가하는 방법으로 쓰이는 방법의 하나인 VRIO 프레임의 시각으로 생각해 보면 직원의 친절함도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VRIO 프레임이란 가치(Value: 기업의 자원이 실제로 가치가 있는가?), 희소성(Rarity: 상대적으로 자원/능력이 희소한가?), 모방(Imitability: 모방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가?), 조직(Organization: 기업이 자원이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잘 조직되어 있는가?)의 4가지 약자입니다. 일반적으로 V, R, I, O를 전부 만족하면 그 기업은 타 기업에 비해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지닌다고 여깁니다.

기업의 자원이 가치 있고, 희소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데다 조직이 효율적으로 잘 조직되어 있으면 타 기업이 따라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각을 병원에 대입해 보면, 앞에서 말한 의사의 실력이나 명성, 평판은 Value, Rarity, Imitability에 속합니다. 하지만 Organization에 속하는 병원 내 조직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병원은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CS, 직원의 친절함은 조직 내

66

직원 간 화합은 결국 소비자 만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직원의 만족도나 서로 간의 신뢰가 낮은 기업은  
 높은 고객 만족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협력하고 배려하면 고객 만족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99



문화, 분위기, 구성원 간의 상성을 끌어올리므로 병원의 지속적인 비교우위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내외를 기준으로 고객을 분류하면 내부고객과 외부고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예시로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에게 환자는 외부고객,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내부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환자는 고객이라고 인식하기 쉽지만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및 타 부서의 직원들은 고객이라고 인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다룬 VRIO 프레임에 의하면 직원 간의 상성인 organization도 중요한 경영 자원의 하나이므로, 결국 병원 조직 내의 모든 사람은 서로 고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고객뿐만 아니라 내부고객에게도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CS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CS를 어떻게 행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CS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따라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려면 결국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과 같은 기초적인 표현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적 표현의 대표적인 방법은 쿠션 언어입니다. 우리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을 때보단 의자 위에 부드러운 쿠션을 깔고 앉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도 이와 마찬가지로 “실례지만”, “죄송합니다만”, “괜찮으시다면”과 같은 쿠션 언어를 사용할 때 더욱 듣기 좋게, 상냥하게 느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X-ray 테이블로 이동할 때 “옆에 있는 테이블로 넘어가세요.”라는 자칫하면 딱딱하거나 위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말도 쿠션 언어를 사용하면 “힘드시겠지만, 검사를 위해서 옆에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겠습니다.”가 됩니다. 이처럼 업무 중에 접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쿠션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한다면 고객 만족을 달성하

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외모, 몸짓, 표정 등으로 나타나는 표현으로, 앞에서 다룬 언어적 표현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으므로, 표정이 가려져서 친절한 표정이나 미소를 보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스처(몸짓)를 사용하면 더욱 쉽게, 친절하게 환자분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력이 안 좋으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건네는 손은 따뜻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들로 CS를 열심히 실천하면 방사선사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원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CS의 실천을 위해서는 고객의 개념을 확대하여 항상 함께 일하는 동료 모두가 내부고객이라 생각하고, 서로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예의와 존중을 갖춘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명령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의뢰형, 청유형으로 대화하여 동료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직원의 만족이나 직원 간 화합은 결국 소비자 만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직원의 만족도나 서로 간의 신뢰가 낮은 기업은 높은 고객 만족을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협력하고 배려하면 고객 만족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상의학과는 대부분의 진료과가 거쳐 가는 병원 진료의 핵심이고, 결국 우리 방사선사는 병원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방사선사 선생님들이 CS에 힘을 써 주신다면 보다 많은 환자분이 도움과 위안을 얻고, 더 나아가 원내 입지를 공고히 할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sup>Ⓚ</sup>

# 신한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사선학 4년제 학사 학위 취득 1년 과정 모집



### 편리한 접근성

망월사역(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



### 장학혜택

다양한 장학혜택



### 역사성

50년의 역사와 전통

**모집기간** 2022.01.03.(월)~2022.02.11.(금)  
**등록기간** 2022.02.16.(수)~2022.02.18.(금)  
**납부방법** 계좌이체(가상계좌)  
**개강예정일** 2022.03.02.(수)  
**전형방법** 선착순 모집  
**접수처** 신한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문의** 031) 870-3813, 3152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2021년 12월 말중 <http://life.shinhan.ac.kr>에서 모집공고)

#### 모집전공

전공명	정원	지원자격
방사선학전공	80	방사선사 면허증 소지자(예정자)

#### 학점은행 모집과정

\* 표시는 신한대학교 총장명의 학위취득

전공명(1년과정)	정원	전공명(4년과정)	정원
방사선학전공	80	사회복지학전공*	40
간호학전공	80	태권도학전공	40
임상병리학전공	80	사회복지현장실습	160

#### 기타 모집과정

경기도 주관 사업 과정	정원	고용노동부사업	정원
귀농귀촌대학(토)	70	전기기능사	20
조경가든대학(토)	40	직업상담사과정	20
시민정원사(금)	30		
민간경비교육(화,수,목)	70		

망월사역 바로 옆

도봉산역

신한대

망월사역

회릉역



## 건강한 소통

KRTA와 함께하는 공감 콘텐츠

- 44 **Essay**  
다인학설  
그대가 행복해져야
- 46 **Thinking**  
존재가치 I  
가치 있는 직업, 보람 있는 삶
- 50 **Pause**  
주식, 어떻게 할까?
- 54 **Webtoon**  
숨 참으세요

# 다인학설 그대가 행복해져야

글 조기태(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 정년퇴임)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 다 할 만큼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요, 문학은 깨달음의 길 이라 하지요. 문학이라는 맑은 영혼의 눈을 뜨고 있는 군단이 있는가 하면, 종교에 심취하여 행복을 찾기도 하며 사람마다 행복을 찾는 길은 다 다를 것입니다. 조직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업적의 극대화에서 행복을 느낍니다. 그는 유능하다 는 평가를 얻으며 만족해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슴지 않고

아랫사람을 도구로 씁니다. 남의 고통은 그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부하직원의 보람이나 만족감 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행복감을 준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압니 다. 그는 그 결과나 업적에서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 다. 그러나 다른 이가 행복해 하는 것으로 그는 충분히 행복해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누구와도 관계를 갖기 않고 자기만을 위 해서 삽니다. 자기만족 속에서 혼자만 행복할 것입니다. 크게 두 부류지요. 자기만 행복하면 되는 사람, 남이 행복해야 자기도 행복해지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행복을 느 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나만의 행복이나, 남의 불행을 딛고 이룬 행복보다는 주위와 내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 이 아닐까요. 이에 제가 나름대로 행복을 측정할 수 있는 학설(?)이라고 주 장해 오던 것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다인학설'. 「Thine」란 단어가 있습니다. 「thin(≠thick)」에 e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단어인데 영시에 나 나오는 고어입니다. 사전에 나온 뜻을 보면 your(그대의), yours(그대의 것)이란 뜻인데,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 제가 명 하기를 「Thine Theory(다인 학설)」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 람이 남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다소의 여유와, 남을 돕고 싶은 고운 심성이 있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그룹을 살펴보면, 첫째 그룹은 주는 것을 그냥 받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베푸는 사람이 좋아서 주는 것이니까 굳이 고마워하는 마음이나 부담가질 필요가 없 다며 받기만 합니다. 둘째 그룹은 하나를 주면 받자마자 신세 지는 것이 싫어서 즉시 그대로인 하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그룹은 비록 작은 도움일지라도 그것을 받고 너무 기뻐하 는 그룹이고, 더욱 넉넉한 심성과 순수한 마음으로 필요한 곳 에 도움을 주는 것은 옛 성인의 가르침과 일치하다고도 생각합 니다.

베풀어 주어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 베푸 는 것입니다. 그것은 「놀부의 제비」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며 공유하는 것은 주는 이나 받는 이나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서로에게 삶의 싱싱한 에너지를 생기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자기가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받는 이, 즉 그대(다 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요. ❶

ps: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선택이다. 땀 흘리는 사람들 은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가슴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잃고 인생 을 잃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마스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사람과 사람의 관 계론 영향으로 제가 주장하는 다인학설을 보내드리며 변함없는 친절에 감사와 미소를 보냅니다. 불교에서 욕심은 인간의 본성이라 합니다. 백성과 땅과 재산을 모 두 가진 왕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군요. "나에게 베풀고 달라고 하는 백성보다 나에게 작은 것이라도 가져 오는 백성이 좋았다."고 욕심을 버릴 수는 없지만 연연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요!

ps: 행복은 얼마나 모르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는가! 얼마나 모 르는 사람이 그대를 그리워 하는가로 측정된다고 생각합니다.

66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99





# 존재가치 I 가치 있는 직업, 보람 있는 삶

글 양진영(로그스코칭센터 대표, 서울여성병원 영상의학과 실장)

지난 호까지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는 심리도구인 DISC(인간 행동유형)을 통해 자신을 발견함과 동시에 사람을 이해하는 통찰을 얻었다.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요인들이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가치체계이다. 가치는 코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며, 고객에게 존재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보다 탁월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따라서 가치는 인간 내면 속에 숨겨진 본성과 같은 것이며, 인간이 행동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이유는 자기내면에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결정하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가치는 우리 삶의 나침반과 같아서 내가 선택하고 행동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자기내면의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과 선택에 후회함이 없이 보람과 감사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인생의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95% 이상의 사람들이 가치를 모른 채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것을 마치 운명처럼 여기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치를 모른채 직업을 선택하면, 내가 그 직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직무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직무가 나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 결국 가치를 모른 채 직업을 선택하면,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직무의 중요함과 소중함, 특별함, 고귀함 같은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되며 직업은 그저 경제활동의 수단으

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선택한 방사선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다른 직업을 찾는 것은 다소 현실적이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회원 분들 한명 한명의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울 것이며, 그 가치를 우리의 직업인 '방사선사'의 직무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방사협보를 통해 선생님의 위대한 존재가치를 발견하고 당신의 직무를 통해 그 가치를 실현하여 보다 행복하고 탁월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먼저, 가치에 대해 좀 더 이해하도록 하자. 가치란 인간 내면에 숨겨진 본질적인 것으로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또한 이 가치의 속성은 성품(인성)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가치의 발견은 내가 어떤 성품을 지녔고, 어떤 환경 혹은 어떤 대상자들과 함께 삶을 살아야 행복한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가치는 모든 결정을 주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 자신의 가치체계를 분명히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사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하는지를 다음 실화를 통해 이해하도록 하자.

1979년 이란에서 극심한 반미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 테헤란에 있는 페로의 회사 임원 두 명이 납치·감금되었다. 보석금은 무려 1천 3백만 달러로 결정되었다. 고위급 외교 협상도 무위로 끝나자 페로는 자신의 임원들을 구하는 길은 직접 나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설적인 군사 전문가 아서 불 사이먼스 대령을 초빙하여 임원들을 감방에서 구출하기 위해 과감한 습격 작전의 총 지휘를 맡기고 그 작전에 참여할 사람들을 재빨리 모집했다. 뽑힌 사람들은 모두 테헤란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고 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페로는 그들을 '독수리들'이라고 불렀다. "높이 날아 기선을 제압하고, 많은 일을 해내고 성과를 제시하고 변명이 필요 없는 전문가"라는 뜻이었다. 그들은 성공하면 엄청난 보수를 받겠지만 그보다는 위험률이 더 높았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못한 일이었기에 실패 가능성만 큰 게 아니라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페로는 왜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자신의 모든 기력을 총동원해서 과감하게 도전했을까? 이와 같은 결정과 행동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용기, 충실함, 사랑, 책임, 결단력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페로는 주위 사람들을 배려하는 비범한 재능과 의지력을 보여주었다. 페로의 사랑은 자신의 부하를 구출하고 지키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의 책임감의 가치는 자신의 직책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의 용기와 결단력의 가치는 자신의 안위와 명예를 뒤로 한 채 부하직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결정으로 이어지게 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의 힘이며 위대함인 것이다. 만약에 페로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답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당시, 가장 1번으로 탈출에 성공한 사람을 모두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뉴스를 통해 접하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바로 그 사람은 세월호 선장이었다. 세월호의 항해와 안전에 가장 책임 있는 자가 수많은 생명을 뒤로 한 채, 가장 먼저 자신의 목숨을 구명하게 위해 탈출했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며, 그의 선택과 행동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 물론 세월호 선장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도 두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선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월호 선장이 자신의 가치체계를 온전히 인식하고, 그러한 가치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면.. 세월호 참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세월호 선장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직무와 책임에서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지.. 그리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몰랐던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모른 채 가치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페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페로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어마어마한 보석금을 계산하면서 회사의 손익을 따졌을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용기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게 될 때,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치기 쉽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빠지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보다 경이롭고 행복해지려면 인생에서 진정 가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매일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요즘에는 이런 삶을 찾아보기 어렵다. 많은 이들에게 자신 스스로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를 뿐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은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을 보게 된다. 그들에게 세상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 절대로 자신에게 손해되는 선택은 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을 쏟지 않으려고 한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명확히 모른다면 어떻게 자부심의 기초를 세울 수 있겠는가? 결정하기 곤

66

### 자신에게 중요한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99

란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면, 그 상황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모든 결정은 무엇이 가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몹시 힘든 고문처럼 느껴지곤 한다. 페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의 가치관이 알려 주기 때문이다. 그의 가치관은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우리 삶의 방향은 우리가 가진 가치들의 자력에 이끌려 제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치들은 삶의 방향과 운명을 창조하는 데 끊임없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힘인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보상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듯 존재가치에 따라 행동하면 오랫동안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가치, 즉 높은 이상대로 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소중이 여기는 가치들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이 비극적으로 사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이며, 나의 의도가 아닌 타인의 의도에 끌려 사는 삶이 되게 된다.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는 잘 안다. 그러나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전혀 모른다.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다. 자신이 믿는 '옳은 일'에 따라 살 때에만 내부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이 품고 있는 가치들,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 가치들이 자신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이끄는 나침반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때론 고통과 갈등을 겪게 된다. 좌절과 파멸로 이끄는 버릇을 가지기 쉽다. 과도한 음주, 과식, 마약, 쾌락추구, 남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 게임중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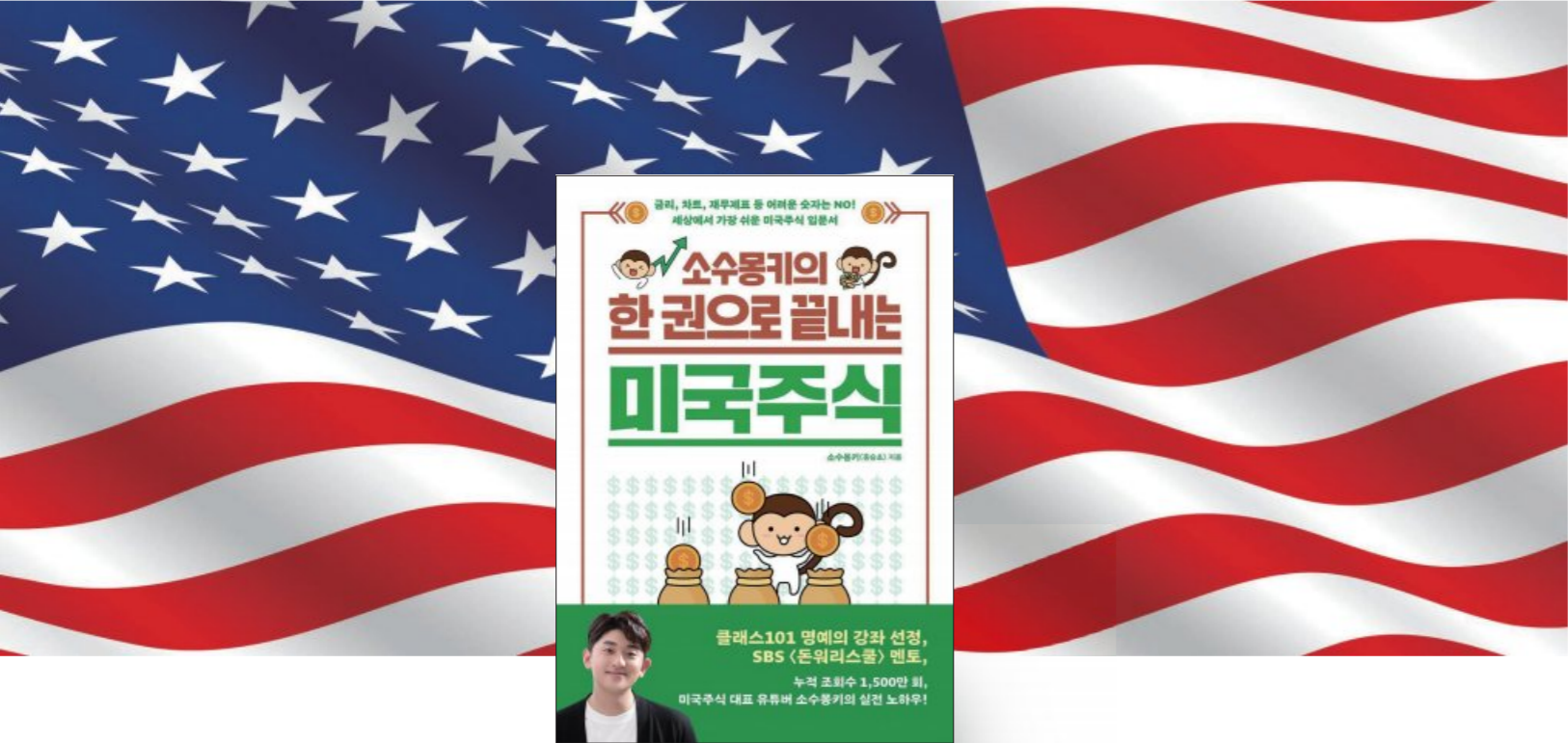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좌절이나 우울, 삶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허탈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삶의 공허함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 심리적 공허함을 빨리 메울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행동을 바꾸려고 애쓸 뿐,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가령 알코올 중독자는 음주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가치'에 관련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순간순간 느끼는 기분이 싫어서 그 마음 상태를 바꾸려고 술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치를 모르고 사는 삶은 인간의 행복과 보람된 삶에서 멀어질 수 있으며, 삶의 형태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가치를 온전히 인식하고 사는 삶은 '방사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방사선사의 직

업적 정체성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직업의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진단 가치 있는 의료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 방사선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는 것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조직과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방사선사의 직업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실현하는 통로가 되며, 방사선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가치는 매우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 존재의 위대한 가치를 우리 모두 발견하고, 그 가치대로 사는 삶을 통해 진정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방사선사'의 직업을 가지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이 되길 기원한다.

이번호에서는 '가치'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다뤘다면, 다음호에서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실천적인 내용을 다루겠다. ❶





## 떠오르는 직장인의 재테크 수단 주식, 어떻게 할까?

글 심지나(세브란스병원)

필자가 처음 주식 계좌를 개설한 것은 2018년이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시기가 맞물려, 주식의 쓴맛을 보고 '나와는 안 맞는 구나라고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이때만 해도 또래보다는 경력과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께서 주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후 코로나19가 퍼진 2020년, 이전 IMF때처럼 속절없이 하락한 주식이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다시 주식에 도전해 보고자 공부를 시작했는데 2018년과는 상황이 아주 달랐다. 주위의 사람들, 친구들, 심지어는 재테크

에 전혀 관심이 없던 동생까지도 주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근로소득만으로는 자산을 모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필자도 코로나 이후로 주식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수익률이 높거나 많은 돈을 번 것은 아니지만 주식과 관련해서는 워낙 양질의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소수몽키의 한 권으로 끝내는 미국주식'이라는 책을 읽

게 되었는데, 미국주식뿐만 아니라 한국주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태도나 매매법이 알기 쉽게 쓰여 있었다. 재테크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나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자 하는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위해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한다.(이 책의 저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 미국주식에는 세금을 낸다던데?

미국주식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진입장벽이 되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주식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로 기본적인 내용만 익히면 크게 손해를 볼 일이 없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세인데, 배당금의 15%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배당소득세는 애초에 배당금을 받을 때 15%가 원천징수된 후 계좌로 지급되기 때문에 따로 신경쓸 것이 없다. 그러나 연간 배당금의 세금 기본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받는 배당금 총 금액이 2,000만원이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다.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로, 주식을 통해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양도소득세는 1인당 연간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간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냈다면 250만원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 좋은 종목 고르기 (관심 종목 찾기)

첫 번째, 내가 불안에 떨며 제때에 매수, 매도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내가 잘 알고 있는 회사'를 찾는다. 나와 주변 사람들이 돈이나 시간을 쓰고 있는 기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러한 기업에 투자한다. 또한 그 기업이 속하는 분야(산업)에 해당하는 대표 주식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좋다.

두 번째, 독과점 기업에 투자한다. 독과점이란 소수의 기업(1~3개)이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독과점 기업에 해당한다고 해도 그 점유율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므로 그 산업이 현재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산업인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지, 다른 기업들이 쉽사리 도전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지를 함께 판단한다.

세 번째, 완성품보다는 소재, 부품, 원료 등 기본이 되는 회사, 즉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 예를 들어,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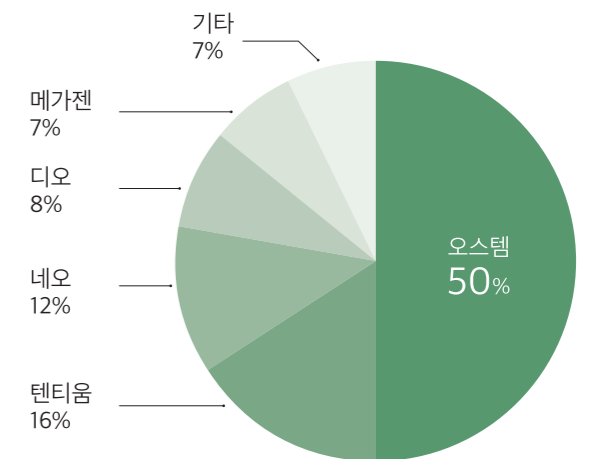
IMF와 코로나19 시기의 코스피 그래프



출처: 네이버 증권

### 시장점유율 독점 예시

오스텔임플란트는 국내 임플란트 시장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구글 이미지

기차 산업이 성장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전기차 충전소' 시장에 대해 찾아보고 이 산업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것이다. 경쟁이 치열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보다 투자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 종목 평가 방법 - 지금 사도 되나?

첫 번째, 저평가된 종목인지 확인한다. P/E(Price/Earning), 즉 버는 돈(순이익) 대비 얼마의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는지와 P/S(Price/Sales), 즉 매출 대비 얼마의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



는지를 활용한다. 동종 업계 경쟁사보다 P/E, P/S가 낮게 거래되고 있거나,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 다른 주식 대비 낮게 거래된다면 매수를 고려한다.

두 번째, 투자자의 기대감을 부풀리는 주요 이벤트(D-day)가 있는지 확인한다. 실적이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여, 그 이벤트보다 최소 3~6개월 전에 매수를 고려한다. 이른바 '여름에 패딩사기' 전략이다.

이 두 가지 평가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면, 필자는 첫 번째 방법만으로는 주식에 흥미를 느끼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이 가장 매력적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두 번째 방법을 충족하는 종목이 훨씬 매력적이었다. 또한 종목을 고를 때 투자금 분산을 위해 투자 기간을 나눠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기 투자용으로는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D-day가 지나기 직전에 매도하고, 장기투자용으로는 배당주나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는 저평가된 종목, 또는 1등이 굳건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음 편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는 책의 내용과 필자의 경험을 종합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이런 의견도 있구나' 정도로 참고해주시기를 바란다.

### 포트폴리오 관리 방법

한정된 자산 안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내기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과 같은 산업군에 있는 종목들을 비교하여 더욱 매력적인 종목이 있다면 갈아타는 방법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다. 갈아타기를 할 때는 보유 종목 중 비슷한 업종 또는 비슷한 유형을 가진 주식끼리 비교하는 것이 좋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 그 종목과 같은 산업군에 있는 다른 종목이 더 기대수익률이 높은지(저평가 되어 있는지, 성장성이 높은지, 성장 촉매제가 있는지), 배당률이 높은지, 장기로 묻어 두기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여 포트폴리오를 관리한다.

### 매도 방법

이 책은 대표 우량주조차도 보통 연 평균 3회 이상, 즉 강세장과 약세장에 상관없이 1년에 3번 정도는 갑작스럽게 10%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러한 '공포'를 이겨내고 '내가 매수한 이유가 사라졌을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식을 산 이유가 사라지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특정 이벤트(D-day)가 다가올 때이다. 주요 이벤트를

노리고 매수한 종목이라면 그 이벤트 2주 전부터 분할 매도하고, 이벤트 당일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겨둔 분량을 매도할지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없어질 때이다. 이는 해당 종목 자체적으로 시간에 따라 원래 투자지표수준까지 왔을 때, 비슷한 분야의 기업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왔을 때, 또는 일시적 악재로 인한 하락 부분이 회수됐을 때로 세분화할 수 있다.

### 그 외 투자 방법

첫 번째, ETF에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다. ETF란 여러 개의 주식을 한 꾸러미로 묶어 상품화한 것으로, 직접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도를 낮출 수 있으며, 상황별로 다양한 ETF를 골라 활용할 수 있다.

ETF와 같이 변동성이 적은 곳에 타이밍을 고려하지 않고 투자함으로써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매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장기 투자금으로 편성해 놓은 금액을 조금씩 분산하여 미리 생각해 둔 10~15개의 종목에 대해서 고점 대비 15~30% 하락 시에만 매수하고 다시 고점을 회복하였을 때 매도하는 방법이다.

재테크가 일상화된 시대에 주식을 단순히 '도박'으로 여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스로 공부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고 남의 이야기만 듣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도박'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은 428쪽이라는 부담스러운 책 두께를 가지고 있지만 읽기 쉽고 간결한 어체로 주식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데 유용한 책 같다. 주식과 관련해서 이 책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이 무궁무진하니 이를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길 바라는 마음이다. **K**

### Company guide 사이트의 PER, PSR 확인 창

Company guide에서는 다양한 기업정보 및 투자에 사용되는 지표들을 정리해주고 있다.

기업정보	ETF/기타 정보	리포트	실적자료	연관서비스	스톡리뷰	매일 분석	월간리	투자정보	이슈안내
삼성전자	005930	삼성전자	PER 18.61	PSR 11.69	EPS 18.76	1.81	4.19%		
기업가치 지표									
Per Share	2021년 9월	2021년 8월	2021년 7월	2021년 6월	2021년 5월	EPS: 18.76, P/E: 18.61			
EPS (₩)	5,423	6,024	3,166	3,841	2,435				
EBITDA (₩)	9,894	11,737	6,445	8,789	5,542				
EPS (₩)	6,223	6,859	3,523	4,307	4,706				
EPS (₩)	31,414	33,458	33,938	34,842	35,850				
EPS (₩)	26,973	25,242	37,528	38,498	46,251				
Dividends									
EPS (₩)	850	1,426	1,418	2,994	722				
EPS (₩)	851	1,427	1,417	2,995	722				
배당성장률(%)	14	23	45	78					
Multiplies									
PER (₩)	6	6	18	21					
PSR (₩)	6	6	7	10					
PSR (₩)	2	3	2	2					
PSR (₩)	2	3	3	2					
EV/Sales (₩)	2	3	2	2					
EV/EBITDA (₩)	8	9	7	8					

출처: Company Guide 사이트

### 에코프로비엠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일간봉 그래프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로 2021년 한 해 간 115% 오른 종목이다. 최근 3개월동안 약 -10% 구간 (매수구간)이 나타난 지점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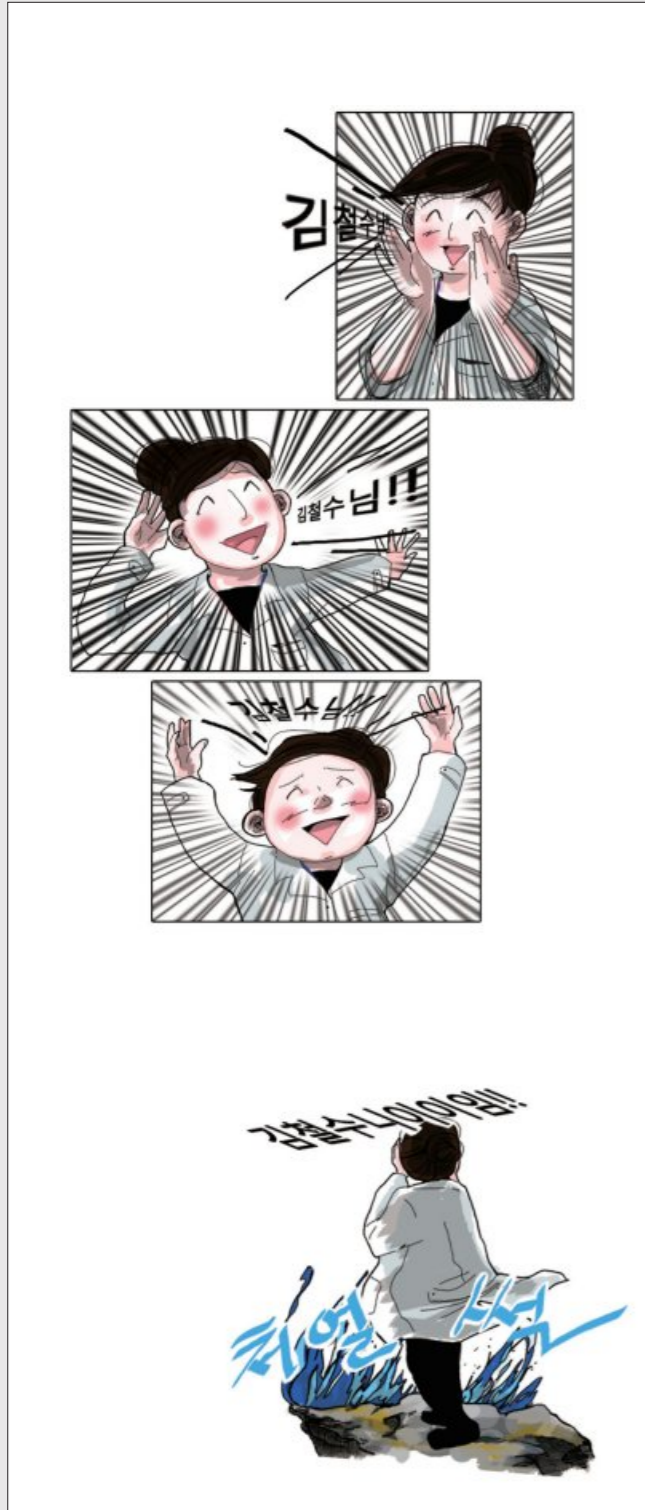
출처: 네이버 증권

# 숨 참으세요

틀

## 16. 외치기

웹툰 형식으로 아래로 길게 읽어주세요.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접수증은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환자분을 뵈 때 중요한건
1. 성함
  2. 생년월일
  3. 성별

하루에 수백명의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연령이 다른 동명이인도 성별이 다른 동명이인도 많기 때문입니다.



\* 그 다음 환자등록 번호를 확인, 촬영 내용을 다시 확인 후 촬영을 시작합니다.



...환자분 전 이영희라는 환자분을 불렀습니다. (I called a patient named Lee Young-hee.)

### 전혀 다른 성함의 환자분

간혹 전혀 다른 성함을 듣고 본인 이름이라며 오시는 분들도 있기에, 반드시 몇 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환자를 찾기 위한 단 한 가지 방법은



오로지 목청 터져라 성함을 외치는 일 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명의 환자분 성함을 오로지 목소리 하나로 부르다보니



이 일 후로는 인후염에 걸리면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힘줘서 소리를 질러도 공알 같이 작은 소리만 나온다던지



### 어느날은 목소리가 정말 전혀 안 나오기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을 만나지만 잊지 못하는 한 사람.



### 오직 혼자만 계셨지만 아무리 불러도 듣지 못하시던 분



여러분을 이어주는 한쪽방이라도 꼭 메고 기다려 주세요.

'숨 참으세요' 는 네이버 도전만화와 애니원툰에서 연재되었던 웹툰입니다. 네이버 http://comic.naver.com/challenge/list.nhn?titleId=690698 애니원툰 http://anyonetoon.com/AocWebtoon.aoc?webtoon\_num=57&

# 외국인환자의 응대를 위한 기초회화 “일반검사실에서의 흉부검사”

**Situation 01**

Park: Hi there, Are you Mr. William? Can you repeat back your name please?  
**안녕하세요? 윌리엄님 맞으신가요? 성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您好，您是威廉先生吗？可以说一下您的名字吗？  
넌하오, 닐슬윌리엄씨엔성마? 커이짜이슈어이씨아닌더밍쯔마?

**Situation 02**

William: Yes, My name is William Carltons. I'm here to take an X-ray exam of my chest today.  
**네, 제 이름은 William Carltons입니다. 오늘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하러 왔어요.**  
是的，我是威廉卡尔顿。今天我来这里做X线胸透检查。  
슬더, 워슬윌리엄칼튼. 진티엔워라이쩌리 쭈어엑스씨엔씨웅뿌지엔차.

**Situation 03**

Park: Ok, Before proceeding, there are a few things to check. When is your date of birth?  
**알겠습니다.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십니까?**  
好的。检查前需要确认几个信息。请问你的生日是哪天？  
하오더. 지엔차치엔쉬야오취에런지거썬시. 칭원니더성르슬나이트엔?

**Situation 04**

William: I was born in July 19th, 1991.  
**제 생일은 1991년 7월 19일 입니다.**  
我的生日是1991年7月19日。  
워더성르슬이지우지우이니엔치위예술지우르.

**Situation 05**

Park: And.. May I see your patient ID card or any receipt?  
**네, 진료카드 또는 영수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好的，医疗卡或收据能否出示一下？  
하오더, 이리야오카훤쇼우취슬쭈츄슬이씨야?

**Situation 06**

William: Here you go.  
**네 여기 있습니다.**  
好的，就在这里。  
하오더, 짜우짜이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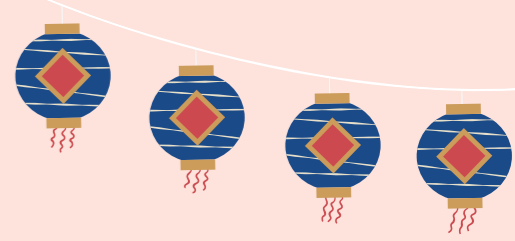
**Situation 07**

Par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Now please come into the X-ray room.  
I'm going to take some medical pictures of your chest, and it may take few minutes.  
First, please take off your clothes, including your underwear, and put on the hospital gown.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X-ray 검사실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지금부터 흉부 엑스선 검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요시간은 수 분 정도이며,**  
**먼저 속옷을 포함한 환자분의 옷을 탈의하시고 병원 가운으로 갈아 입어주세요.**  
感谢您的配合，现在请进入X线检查室。  
我们要给您拍胸片，会花几分钟的时间。  
首先请脱衣服，包括内衣也需要脱下来，并穿上医院提供的衣服。  
간씨에닌더페이허어, 씨엔짜이칭쥘루엑스씨엔지엔차슬.  
워먼야오게이네파이씨웅피엔, 웨이화지편중더슬지엔.  
쇼우씨엔칭투오이푸, 바오쿠어내이에야오투오씨아라이, 뽕추완상이위엔티공더이푸.

**Situation 08**

William: Do I need to remove my necklace too?  
**목걸이도 풀어야 하나요?**  
我需要摘下项链吗？  
워쉬야오짜이씨야썹리엔마?





**Situation 09**

Park: Of course, and put your belongings in the basket at the corner.  
 You will have to control your breathing while I'm taking X-rays. Please just follow my instructions.  
 A chest X-ray requires you to stand upright, so please stand up here then put your chest against this filming board. Then, please hug and hold this machine and put your shoulders against here.  
**네,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구석에 있는 바구니에 넣어 주세요.**  
**제가 검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호흡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제 설명에 잘 따라 주세요.**  
**흉부 엑스선 촬영은 반듯하게 서서 진행됩니다. 먼저 이쪽에 서 주시고, 이쪽의 검사용 판에 가슴을 기대어 서주세요. 앞의 기계를 끌어안고 양쪽 어깨는 바짝 붙여 주세요.**  
 当然，并且您的随身物品都要放在角落的篮子里。  
 我们在做X线胸透检查的时候，您需要控制您的呼吸。请根据我们的指示来做。  
 做X线胸透检查的时候需要您笔直地站着，所以请站在这里，然后将您的胸部紧贴在检查板上。  
 然后请抱住机器，两侧肩膀也紧紧靠着这里。  
 당란, 뽕치에닌더수이선우핀도우아오팡짜이지아오루오더란즈리.  
 워먼짜이쭈어엑스씨엔씨옹부토우지엔차더슬호우, 닌쉬야오콩즐닌더후시. 칭껌취워먼더즐슬라이쭈어.  
 쭈어엑스씨엔씨옹토우지엔차더슬호우, 쉬야오닌비즐더째저, 소이칭째짜이쭈리,  
 란호지양닌더씨옹부진티에짜이지엔차반상. 란호칭바오쭈쭈치, 랑처쭈엔방예진진카오저쭈리.

**Situation 10**

William: You mean lean on this plate?  
**이렇게 기대라는 말씀이신가요?**  
 您说的是这样靠着吗?  
 닌슈어더슬쨌양카오저마?

**Situation 11**

Park: Yes, that's right. Now the X-ray will begin very soon, Please do not move at all.  
 Please take your deep breath ... and hold it,  
 You can breath easy now, Let me check the image.  
**맞습니다. 이제 검사가 시작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숨을 최대한 들어 마시고, 숨을 꼭 참으세요.**  
**숨을 편하게 쉬세요.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겠습니다.**  
 对，就是这样。X线胸透检查马上开始，请别动。  
 请深吸一口气，然后忍着。  
 现在可以放松地呼吸，我们要确认图像。  
 뚜이, 쭈우슬쨌양. 엑스씨엔씨옹토우지엔차마상카이슬, 칭비에뽕.  
 칭션시이코우치, 란호런저.  
 씨엔짜이커이팡송더후시, 워먼야오취에런투씨양.

**Situation 12**

Park: Your exam is done, You may go back home after changing clothes, Please don't forget your all belongings. Do you have any questions?  
**검사가 끝났습니다. 옷을 갈아입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소지품 잊지 마시고 챙겨 가세요.**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您的检查结束了，现在请换衣服回家，并带好您的随身物品。  
 请问还有其它问题吗?  
 닌더지엔차지에슈러, 씨엔짜이칭환이푸훼이찌아, 뽕따이하오닌더수이선우핀.  
 칭원하이요우치타원티마?

**Situation 13**

William: Mmm.. Can you tell what the test results are like?  
**음.. 검사 결과는 어떤가요?**  
 额。。。可以告诉我检查结果吗?  
 어.. 커이까오수워지엔차지에귀마?

**Situation 14**

Park: You can hear about your X-ray results at your next appointment, from your doctor.  
**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진료에서 담당 의사에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您可以在下一个预约时间和您的医生确认。  
 닌커이짜이씨아이거위위에슬지엔허어닌더이성취에런.

**Situation 15**

William: Ok, Thank you so much.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好的，非常感谢。  
 하오더, 페이창간씨에.

**Situation 16**

Park: Take care of yourself, have a nice day.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请走好，祝您今天过得开心。  
 칭조우하오, 쭈닌진티엔꾸어더카이신.

자료제공 대한방사선사협회 국제부



# Quiz 이벤트

방사협보 제388호를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퀴즈 이벤트 QR코드로 접속하여 응모해 주세요.



응모기간 3월 8일 ~ 3월 31일



- 1등 에어팟 프로 (2명)
- 2등 신세계 10,000원 상품권 (20명)
- 3등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00명)

※ 퀴즈이벤트는 방사선사만 참여 가능합니다.  
※ 당첨 상품은 개별 발송하며, 4월 8일(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uiz 1**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조영제 자동주입기 수행 주체에 관해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조영제 자동주입기 사용 시 ( )은 방사선사의 업무라는 것을 유권해석을 통해 재확인받았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KRTA News 참조)
- Quiz 2** 2022년 대한방사선사 전국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시도회와 개최 날짜는? (뒷표지 참조)
- Quiz 3** CS(Customer Service)란, 시장 점유율 확대나 원가 절감이라는 경영 목표 추구에서 벗어나 ( )을 우선 목표로 하는 경영 기법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Together 참조)

## 방사협보 제387호 퀴즈 이벤트 1등 당첨 후기

방사협보를 보면서 설마 하는 마음에 퀴즈이벤트에 참여 했었는데  
나에게도 1등 당첨이라는 행운이~~  
임인년 을 한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네요.  
딸아이 에게도 좋은 선물을 해 준 것 같아 뿌듯 합니다. 감사합니다!!\_강명\* 회원



항상 방사협보를 받고 시간날 때 이벤트에 응모하는 편인데 어저다가 등에 당첨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사용 안하는 경품이라 친누나에게 줬는데 너무 좋아해서 저도 뿌듯합니다.  
코로나 시국에 방사선사 분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저희 방사선사 분들끼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도 코로나 시국이 언제 끝날지  
기미가 안보입니다. 방사선사 선생님들 조금만더 힘내시고 경품 잘 사용하겠습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화이팅!!\_유승\* 회원



<방사협보>는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시면 의견을 반영하여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회원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

협회는 정관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61차 정기대의원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대의원은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월 26일(토) 14:00
-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
- 안건**
  1.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2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편성(안) 승인의 건
  3. 정관개정(안) 승인의 건
  4. 제29대 감사 선출의 건
  5. 기타 안건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국☎ 02-576-6524)으로 문의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우완희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 방사선사와 함께 GNRTA!”

# 2022 대한방사선사 전국 춘계학술대회

2022. 4. 2.(토) 10:00~18:00

Hybrid system | 온라인&창원 컨벤션센터(CECO)

등록기간

2022.2.21.(월) ~ 3.27.(일)

신청

대한방사선사협회 홈페이지 및 경상남도회 홈페이지

이수시간

4시간

협회: 02-576-6524 | 경남도회: 010-5480-2481, 010-5898-7088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경상남도회